

K-뷰티 글로벌 인기 여전... 국내외 수출 상담 이어져

올 수출 100억 달러 돌파 기대

한국 화장품의 글로벌 인기가 여전하다. 기업들은 기존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보다 동남아시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재외동포청은 인천광역시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K-뷰티 수출 상담회'에서 184억 원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8월 2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면서 부대행사로 수출 상담회를 열었다.

일대일 비즈니스사전 매칭 방식으로 진행한 상담회에는 13개국 19명의 동포 바이어와 국내 45개 기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113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45억 원상

당의 계약과 5억6000만 원 규모의 업무협약(MOU) 2건이 체결됐다.

같은 날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롯데마트와 함께 '9월 동행 축제'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1288만 달러(약 171억 원) 규모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아세안 시장 개척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소상공인 80개사가 아세안 현지 바이어 80개 사에 K-뷰티 제품 등을 선보여 420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다.

앞서 8월 16~19일 대만 타이베이(WTTC)에서 '2024 K-뷰티엑스포 대만' 전시회가 열렸는데 무려 15만 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전시 기간 수출상담액만 28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번 '2024 K-뷰티엑스포 대만'은 경기도 지원 기업 40개 사를 포함해 모두 70개 사(81 부스)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나흘간 공식 집계된 참관객만 모두 15만 2252명을 기록했다.

지난 상반기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은 약 6조7000억 원(48억2000만 달러)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화장품 수출은 중소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들은 올 상반기 화장품 수

출의 약 70%인 33억 1000만 달러를 담당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 늘어난 것이다. 업계에서는 하반기에도 수출증가세가 이어져 올해 화장품 수출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글로벌 컨설팅 기업 '올프 올린스'의 사이라 애쉬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미국 경제지 '포브스' 기고문을 통해 "K-뷰티가 세계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K-뷰티 시장이 2030년 183억2000만 달러(24조5000억 원)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영재 기자

1~8월 농식품 수출액 9조 원 육박... '역대 최대'

'신흥 수출 효자'라면 1조 원 규모 넘어... 전년 동기 대비 31.7% 증가
쌀가공식품 수출증가율 41.7%로 가장 높아... 신선농산물 수출은 감소

해외 각국에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올해 1~8월 농식품 수출액이 9조 원에 근접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들어 8개월간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64억8000만 달러(약 8조700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라면과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등의 수출액은 모두 최대치를 새로 썼다.

라면 수출액은 매운 라면의 인기로 작년 동기 대비 31.7% 증가한 8억 달러(약 1조1000억 원)로 8개월간 1조 원을 넘었다. 작년에는 10월까지 라면 수출액이 1조 원을 넘었는데, 올해는 1조 원 달성 기간을 2개월 앞당겼다.

과자류 수출액은 15.4% 증가한 4억 9400만 달러(약 6600억 원)이고 음료 수

출액은 13.6% 증가한 4억4900만 달러(약 6000억 원)로 집계됐다. 가장 성장률이 높은 품목은 즉석밥과 냉동 김밥 등 쌀가공식품으로 41.7% 증가한 1억9000만 달러(약 2500억 원)였다.

이상 기후 여파로 생산량이 줄어든 탓에 배, 포도 등 신선농산물 수출액은 9억 6800만 달러(약 1조3000억 원)로 작년 동기 대비 0.6% 감소했다.

시장별로 보면 대미국 수출이 22.8% 증가한 10억2300만 달러(약 1조4000억 원)를 기록했다. 특히 라면과 쌀가공식품 등의 성장률이 높았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9억5900만 달러(약 1조3000억 원)로 5.3% 증가했고 유럽으로의 수출은 4억 5900만 달러(약 6200억 원)로 30.5% 늘었다. 김보근 기자



8월 16~19일 대만 타이베이(WTTC)에서 개최된 'K-뷰티 엑스포 대만'에 15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사진=경기도 제공]

■ 알림=한국무역신문은 추석 연휴 기간 휴무로 인해 9월 16일 신문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2024년 한가위를 맞아 독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유티레이드허브'에서 은행 통한 수입대금 지급 가능

KTNET, 시중은행 결제유예송금 전자무역 서비스 개시

수입업체가 은행 자금으로 수출자에게 수입대금을 선지급하고 만기일 전에 원금과 이자를 결제하는 '결제유예송금' 서비스가 시중은행 수입 금융상품의 전자무역 프로세스로 구현된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과 손잡고 은행 수입금융상품을 전자무역 결제유예송금 서비스로 본격 제공한다고 9월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무역업체는 은행 방문이나 기업뱅킹과 동일하게 전자무역을 통해서도 수입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국민은행의 유전스 결제(Payment Usance), 하나은행의 유전스(Usance) 송금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타

은행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KTNET의 디지털무역 플랫폼인 유티레이드허브(uTradeHub)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KTNET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결제유예송금 업무의 전자문서 송수신 이용료를 면제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역업체는 KTNET의 결제유예송금 전자무역 프로세스를 통해 국내은행이 해외은행으로 송신하는 국제은행간통신협정(SWIFT) 전문의 송금신청 내용이 나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국내은행에 해외 SWIFT 전문 내용을 따로 요청할 필요가 없다.

김재천 KTNET 디지털무역물류사업본부장 상무는 "결제유예송금 서비스는 신청 전자문서의 은행 수신 여부 확인 및 은

행의 승인결과서 회신 기능 등을 구현한 것이어서 무역업체의 업무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유티레이드허브 홈페이지 하나은행 유전스 송금신청 안내 화면 캡처

해상운임 급등에 해운업계 “신난다”… 무역업계는 한숨

글로벌 ‘컨’ 운송업계 2분기 순익 100억 달러 돌파 “기록적인 ‘돈 잔치’는 무역업체 주머니에서 나간 것”

해상운임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컨테이너 운송업계가 기록적인 순익을 기록하고 있다. 해상운임의 급등은 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무역업계에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외신 보도와 국내 무역 및 운송업계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글로벌 컨테이너 운송업계는 기록적인 물동량과 운임 상승에 힘입어 100억 달러(약 13조4000억 원)를 넘는 순이익을 올렸다.

블룸버그통신은 컨테이너 운송업계 전문가 존 맥카운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덴마크의 머스크(A.P. Moller-Maersk A/S)와 중국 국영 해운사 코스코(중국 원양) 등 세계 주요 컨테이너 운송업체의 2분기 순이익이 전 분기보다 두 배 증가해 100억 달러를 넘겼으며 이는 지난해 2분기의 88억8000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존 맥카운은 국제 상품 무역 시장이 견고한 만큼 3분기 이익도 “주목할 만한 증가”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주요 해운업체들도 기록적인 이익을 올리고 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운송업체인 HMM은 큰 폭으로 오른 운임 덕분에 올해 상반기 순이익만 1조1458억 원을 거둬들였다. 지난해 총 순이익이 9687억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반년 만에 작년 한 해치 순이익을 뛰어넘는 돈을 번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HMM이 이번 3분기 매출 3조1899억 원, 영업이익 1조246억 원

을 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는 1년 전보다 매출은 50%, 영업이익은 1251% 증가한 수준이다.

컨테이너 해상운송 업계는 전 세계 상품 무역 운송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이 업계의 순이익 급증은 글로벌 물동량 증가와 운임 급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홍해에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격으로 아프리카 남단을 통과하는 장거리 항로 운항을 하게 되면서 유럽 항로 선박량이 부족해졌으며, 이로 인해 현물 컨테이너 요금이 상승하고 일부 주요 항구에서 혼잡이 빚어졌다.

이런 운임 상승과 선박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은 급증했다. 영국 컨테이너 물동량 집계기관인 CTS에 따르면 2분기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4640만 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2분기의 4620만 TEU를 넘어선 것이다.

글로벌 해상 컨테이너 운임 상승으로 해운업계가 벌어들인 큰 돈은 무역업계가 부담하고 있다. 무역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운업계가 해상운임 급등으로 기록적인 순이익을 기록하는 동안 무역업체들은 선박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았고 또 비싼 운임도 부담해야 했다”며 “해운업계의 잔치가 지속될수록 무역업체들의 한숨은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채 기자



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Blessing호.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상관없음. [사진=HMM 제공]

우리나라 중심 해운정보, 블룸버그에서 제공

한국해양진흥공사(KOBC)가 개발한 컨테이너선운임지수 등 우리나라 중심의 해운 정보가 글로벌 금융전문 매체인 블룸버그에서 제공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컨테이너선운임지수(KCCI·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와 건화물선운임지수(KDCI·KOBC Drybulk Composite Index)를 비롯해 선박 가격정보 등 자체 개발한 해운 정보를 블룸버그 소프트웨어와 단말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1981년 설립 이후 글로벌 산업 전반의 경제지표, 데이터, 분석정보, 뉴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해양진흥공사 해운 정보는 블룸버그 소프트웨어와 단말기에서 'KOBC' 전용 화면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블룸버그에 등재된 KCCI는 부산항을 출발해 북미, 유럽 등 13개 노선 항로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 운임 정보는 물론 해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한-중, 한-일, 한-동남아 등 아시아역내 항로 운임 정보를 알려준다. KDCI는 철광석, 곡물, 석탄 등 원자재를 운송하는 건화물선 운임지수로, 아시아 항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종합지수를 산정해 서비스한다. 김영채 기자

미 의원들, 한국산 유정용 강관 수입쿼터 축소 촉구

미국 러스트벨트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미국 정부에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의 저관세 수입을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셰러드 브라운(오하이오), 밥 케이시(펜실베이니아),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상원 의원은 8월 30일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한국산 OCTG의 수입 쿼터를 줄이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

의원들에 따르면 한국산 OCTG에 대한 쿼터는 연간 50만8020t이며 2020년에 코로나19발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쿼

터를 1년간 일시적으로 40% 줄인 것을 제외하면 원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의원들은 미국 내 OCTG 수요 감소를 반영하고 미국의 유정용 강관 산업이 해외와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쿼터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올해 OCTG 수요가 2023년 대비 약 2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8년에 설정한 쿼터가 효과가 없으며 한국의 OCTG 산업은 내수 시장이 없어 전적으로 수출에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추석 연휴 기간 신속 관세환급… 24시간 통관지원

관세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수출 기업의 자금 부담과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9월 1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수출 기업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가급적 당일날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은행 운영 시간이 마감된 뒤에 들어온 신청건에 대해서는 다음 날 오전 중 환급해준다. 환급 심사는 명절 연휴 이후 진행하고 환급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은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보근 기자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통관도 지원한다. 전국 세관 34곳에서 9월 18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휴일에도 지연 없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의 통관을 지원한다. 인천세관 등에서는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 통관도 지원한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이를 수용해 선적하지 않는데 따른 과태료 부과도 방지할 예정이다. 김보근 기자

의약품, 파라과이 수출 시 현지 허가·등록 간소화

국산 의약품의 파라과이 수출이 빨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라과이 의료제품 허가·감독기관인 국가위생감시청(DINAVISA)이 대한민국(식약처)을 의약품·백신 분야 고위생감시국으로 신규 등재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 성숙도(4등급)를

받아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신뢰 기반 인정(GReIP, Good Reliance Practice)' 제도를 바탕으로 국내 의료제품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면제 등 국내 의약품의 파라과이 진출시 현지 허가·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김보근 기자



열띤 상담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9월 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2024(GGHK)'의 상담부스에서 참가기업들이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17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는 에너지·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올해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와 연계해 진행됐다. 행사는 ▷글로벌 그린 비전 포럼 ▷프로젝트 설명회 ▷일대일 수출·프로젝트 상담회로 구성되어, 환경 분야 국내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확대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사진=KOTRA 제공]

무협, 대미 통상외교 활동 활발... “협력 강화·갈등 예방”

상·하원의원 등 고위인사 초청해
간담회·네트워킹 행사 잇단 개최
무협회장, 미 방문 통상현안 논의

한국무역협회가 민간 차원의 대미 통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미중 통상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11월 미국 대선에서 대외 통상정책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대미 통상 외교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미 상원의원들과 네트워킹 행사 =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9월 4일 저녁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미국 의회단 초청 한미일 3국 경제대화 네트워킹 리셉션’을 열었다. 만찬으로 진행된 리셉션은 ‘한미일 3국 경제대화(TED)’ 참석차 방한한 미국 상원의원 7명을 초청해 마련됐다.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의원(공화·테네시), 민주당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크리스 쿤스 의원(민주·델라웨어) 등 상원의원 7명을 비롯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구글, 쿠팡 등 미국 주요 기업 관계자가 자리했다.

한국 측에서는 윤진식 무역협회장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정관계 인사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최명배 엑시콘 회장 등 미국 진출 국내 주요 기업 임원이 참석했다. 이밖에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와 허드슨연구소, 동아시아재단 등 싱크탱크와 도요타, 미국증권거래소 등 한미일 3국의 주요 기관·기업 임원 등 10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무역협회는 이 자리에서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미국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윤진식 회장은 환영사에서 “한미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이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빌 해거티 의원은 답사를 통해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미국 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하겠다”며 “미래에도 한미일 기업이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각국의 관계가 발전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원의원들 초청해 간담회 개최 = 무역협회는 이 리셉션에 앞서 미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도 민간 통상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8월 2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존 몰리나(John Moolenaar)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위원들을 초청해 ‘미 하원의원 초청 네트워킹 간담회’를 개최한 것.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미국 연방 하원 의회 내 중국과의 전략 경쟁을 다루기 위해 설치한 특별위원회다. 이번 행사는 미국 대선을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미국

의 대중국 정책 방향성을 가늠하고, 이후 의회에서 추진될 정책 관련 우리 기업의 입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을 비롯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동원산업 등 미국에 진출한 주요 기업 임원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비롯해 존 몰리나(John Moolenaar, 공화·미시간) 중국특위 위원장 ▷로 칸나(Ro Khanna, 민주·캘리포니아) ▷벤 클라인(Ben Cline, 공화·버지니아) ▷토마스 스위지(Thomas Suozzi, 민주·뉴욕) ▷브라이언 바빈(Brian Babin, 공화·텍사스) ▷배리 루더밀크(Barry Loudermilk, 공화·조지아) 중국특위 소속 하원위원 6명이 참석했다.

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의회의 대중국 산업정책·기술·투자 관련 입법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하고 세심한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한 데 이어 “한국인 전문인력 전용 비자 쿼터 신설 법안인 ‘한국인 동반자 법안’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다.

또 지난 5월 말에는 미 하원의원 보좌관들을 서울로 초청해 간담회 겸 네트워킹 행사를 가졌다. 5월 27일 ‘간담회’ 행사에 참여한 8명의 미국 하원의원 고위 보좌관 가운데에는 한국 동반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민주당 지미 고메즈 하원의원 및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의 비서실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뒤인 29일에는 미국 진출 국내 기업, 미국 주정부 대표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미 하원의원 보좌관 초청 네트워킹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기업과 미국 정계 인사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했다.

●오피니언 리더 초청해 조찬회 = 무역협회는 이보다 이틀 전인 8월 27일에는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미국 오피니언 리더인 헤리티지재단을 초청해 ‘CEO 조찬회’를 가졌다. 헤리티지재단은 미국의 대표적인 정책 싱크탱크로 외교,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정책연구와 제언 활동을 하고 있다.

조찬회는 7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동향과 차기 정부에서의 양국 협력 과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무협 회장단 및 이사장과 세아제강·고려아연 등 대미 무역·투자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현지에서 통상외교 전개 = 윤진식 회장과 이인호 부회장이 직접 미국 현지로 날아가 통상외교 활동을 전개하



5월 15일 미국을 방문한 윤진식 회장은 워싱턴 D.C.에서 짐 조던(Jim Jordan) 하원 법사위원장을 만나 양국 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9월 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미국 의회단 초청 한미일 3국 경제대화 네트워킹 리셉션’ 행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과 미국 의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제공】

기도 했다.

윤진식 무역협회장은 취임 두 달째 지난 5월 13일 직접 미 워싱턴D.C.를 방문해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 등 상무부 관계자, 상·하원의원, 싱크탱크의 유력인사를 만나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윤 회장의 미국 방문에는 메타바이오메드, 엑시콘, 주성엔지니어링, TOCS틸 등 국내 중견기업 경제인 10여 명이 동행했다.

윤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데릴 아이사 하원의원, 조 윌슨 하원의원 등과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 300여 명을 초청해 ‘한국무역협회 네트워킹 리셉션’ 행사도 가졌다. 또 헤리티지재단과 브루킹스연구소를 차례로 방문해 양국 간 경제 및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7월 23일에는 이인호 부회장이 미국 동남부지역에 경제협력 채널을 가동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주애틀랜타총영사관, KOTRA 애틀랜타 무역관, 미 동남부 6개 주정부(조지아, 앨라배마,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와 공동으로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미 동남부 경제협력의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우리 기업의 미 동남부 지역 내 투자·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양 지역의 경제 통상협력을 확대하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무역협회 이인

호 부회장, 서상표 주애틀랜타 총영사, 엘렌 맥네이어(Ellen McNair) 앨라배마 주 상공장관, 스티트 맥홀터(Stuart C. McWhorter) 테네시주 경제공동체개발장관, 해리 라이시(Harry M. Lightsey III) 사우스캐롤라이나 상무장관을 비롯해 양국 기업인 및 현지 경제단체 인사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통상문제, 민간 차원 활동으로 해결” = 윤진식 무역협회장은 지난 2월말 취임사에서 “현재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을 펼치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의 수출 환경은 매우 악화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통상 문제를 민간 기구인 한국무역협회가 민간 차원의 통상 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무역협회가 대미 통상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한 배경이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무역협회는 정부 차원의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진행하기 어려운 미국 정재계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우리 기업의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며 “미중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 통상관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민간 차원의 통상외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채 기자

관람객 10만 명 시대 연 베페, 기업 수출 도우미로 성장

마이스를 만나다

베페 | 제46회 베페 베이비페어



46회 베페 베이비페어 포스터

‘최초 · 25년 · 46회’ 베페 베이비페어의 역사다. ‘베페는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아시아 최초의 유아용품 전시회 (주)베페의 ‘46회 베페 베이비페어’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펼쳐진다. 2000년 시작된 행사는 명실공히 국내 대표 유아용품 박람회다. 임신 · 출산 · 육아 · 교육 관련 170개 사 350여 개 브랜드가 출품한다. 1999년 7월 설립된 (주)베페는 국내 마이스 산업 확산에 일조했다. 다양한 흥미 요

소를 가미, 17회(2010년)부터는 평균 10만 명이상이 찾았다. ‘온라인 베페’ ‘모바일 베페’ ‘베페TV’ 등 새로운 서비스, ‘베페 맘스쿨’, ‘태교 음악회’ 등을 개발했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내 퍼블릭 전시회 가운데 최초로 국제전시협회인 UFI 국제 인증을 받았고, 국내 최초 아시아전시컨벤션협회연맹(AFECA) 소비자 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최고 · 최대 명성의 행사 = 베페 베이비페어의 경쟁력으로 주최 측은 ‘신뢰’ ‘통합 플랫폼’ ‘해외’ ‘고객 DB’를 들었다. 신뢰는 주최사 (주)베페다. 아시아 최초로 행사를 개최한 이후 완성도 높은 행사로 25년간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행사는 B2C와 B2B를 아우르는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국내 소비자를 만날 기회이자, 해외 진출의 관문으로 발전했다. 지난해에는 해외 6개국 20개사가 현장을 찾아, 161건의 상담에 2671만 달러 규모의 상담이 진행됐다.

중국 상하이 유아용품 전시회, 독일 쾰른 유아 및 아동용품 전시회 등을 나가는 교두보 역할도 했다. 20여 년 역사를 통해 확보한 약 140만 명에 달하는 고객 데이터베이스(DB)도 자랑이다.

●‘5감육아 특별존’ 구성 눈길 = 올해도 현장은 진화했다. 새롭고 신기한 유아용품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5감육아 특별존’이 구성된다. ▷에듀케이션&토이존 ▷친환경존 ▷헬스케어존 ▷푸드존 ▷베이비룸 데코존 등 5개의 트렌디한 테마존에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무장한 50여 개의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한다.

베이비룸 데코존에 마련되는 ‘아기방 쇼룸’에는 최신 아기방 인테리어 트렌드를 제시한다. 유아용품 시장을 선도하는 스토크, 잉글레시나, 더블하트 등은 올해도 참석, 새로운 상품을 공개한다. 영유아 영양 분야 유럽 1위 브랜드인 다논 뉴트리시아와는 ‘위케어(We Care) 부스’도 만들었다.

●전시장 힐링 공간으로 = 매년 유아 트렌드를 반영한 전시 테마로 마이스 업계 주목을 받아왔다. 올해는 육아로 지친 부모들을 위한 힐링 공간이란 의미로 ‘베페 포레스트’를 테마로 삼았다. 자연주의 콘셉트의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 자연 친화적인 다양한 힐링 체험을 제공한다. 전시장 곳곳에는 아로마 오일 향을 뿌려 관람객들의 편한 관람을 돕는다.

전시장 이벤트홀에서는 ‘베페 힐링 육아 클래스’가 열린다. 부모 힐링 강연 및 아기 수면 교육, 꽃꽂이 수업, 힐링 요가 클래스 등이 펼쳐진다. 임신부와 육아맘을 위한

‘육아지원 이벤트’도 진행된다. 친환경 제품으로 구성된 ‘고품격 친환경 육아팩’ 증정 이벤트도 펼쳐진다. 베페 신규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24종의 무료 육아템도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주최 측 관계자는 “‘포레스트’ 콘셉트로 다양한 힐링 체험과 강연을 준비했다”며 “육아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푸짐한 선물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베페는 다르다 = (주)베페는 임신 · 출산 · 육아 멀티 플랫폼 베페 ‘웹사이트(www.befe.co.kr)’를 운영한다. 20년 넘는 전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육아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이벤트, 제품 사용 후기, 기프트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를 돕는다. 2010년부터 베페 애플리케이션(앱)을 도입했다. 전시회 모바일 입장 비중은 40%를 훌쩍 넘는다. 참관객은 원하는 부스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벤트, 상품 할인 등 혜택도 누린다. 김준배 기자



베페 베이비페어는 2000년 유아용품 박람회로는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서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대표 행사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베페 베이비페어’ 전경. 【사진=베페】

[인터뷰] 강신동 베페 전무

“메이저 브랜드들이 베페만 찾는 건, ‘최고’이기 때문”

“세계 유아용품 시장 규모는 반도체 시장과 비슷합니다. 중국 시장 규모만 500조 원에 달합니다.”

강신동 베페 전무는 유아용품 시장의 성장성을 강조하며 “베페만의 B2B 프로그램을 강화해 내수 진작은 물론 수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베페가 우리 기업 해외시장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전무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출산율은 저하됐지만, 전시 면적과 참가 규모는 오히려 5~6배 성장했다. 시장의 규모는 줄었지만, 전시 규모는 훨씬 커진 셈”이라며 “한국의 젊은 부모들은 간간한 소비 성향을 보였는데 글로벌 유아용품 산업에서도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글로벌 브랜드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출산율 하락과 신생아 수

감소는 현실이지만 전체 지출 규모는 오히려 품목에 따라 상승하기도 했다”며 “다른 소비재와 달리 유아용품은 직접만 저보고 느껴봐야 안심이 되는 품목이다 보니 전시회를 통한 신제품 홍보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무는 이런 시장변화와 고객 니즈에 맞게 테마별로 전시회를 구성하고 쇼룸 형식의 고객 체험 공간을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유아용품 박람회로 독보적인 위상도 역설했다. 강 전무는 “최초 행사만이 아니다. 가장 많은 브랜드가 가장 넓은 면적에 참여한다”며 “유아용품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의 니즈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벤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매출 채널은 물론 홍보 · 마케팅, 국내외 비즈니스 연계 기능까지 갖춘 전시회”라며 이 때문에 메이저 브랜드들은 베페 전시회만 고집한다고 귀띔했다.

‘베페’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도 나타냈다. 베페(BeFe)는 2011년 ‘Beyond Fair

& Exhibition’이라는 네이밍 스토리를 바탕으로 탄생했다. 강 전무는 “유아용품 전시회를 의미하는 일반 명사 ‘베페’는 저희만 쓸 수 있는 상표권”이라며 “지난 수년 동안 ‘베페’ 상표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고 여기에서 승소했다”며 “베페는 그만큼 고객들의 신뢰는 쌓을 수 있었고 믿을만한 전시회로 차별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도 전시회 이상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모토로 기업과 고객 사이에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강 전무는 “참관객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많은 브랜드가 참여하는 것이다. 시장을 리딩하는 메이저 브랜드는 물론 새롭게 등장하는 브랜드 또는 기존에 없던 제품을 론칭하는 브랜드를 소싱했다”며 “전시회를 찾는 재미와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상품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베페는 경품 마련에만 수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강신동 베페 전무

주목할 이벤트로는 라이브커머스를 꼽았다. 강 전무는 “온 · 오프라인이 연계된 O2O 하이브리드 형식의 행사 기획이 필요했다”며 “참가업체에게는 성과를 높이기 위한 홍보 · 마케팅과 매출 채널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고, 전시장을 방문하지 못한 고객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베페 라이브 스튜디오는 행사가 열리는 4일간 하루 4개씩 총 16개 브랜드의 라이브커머스를 송출한다. 김준배 기자

막걸리 매력에 빠져 ‘막걸리 세계화’ 앞장

‘사라질 뻔한 막걸리를 세계로’

박성기 우리술 대표는 2000년 창업 당시 ‘막걸리 세계화’를 기치로 내세웠다. 국내 주류시장에서 막걸리 점유율이 급속도로 낮아지며, 자칫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다. 박 대표는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술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당당히 소개하며 막걸리 주질 개선에 매진했다. 회사명을 ‘우리술’로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학도 출신인 박 대표는 막걸리 맛 개선을 위해 수도 없이 많은 연구와 실패를 반복했다. 그런 노력의 결과, 지금은 해외 35개국에 막걸리를 수출한다.

●**막걸리가 좋아, 양조장 인수** = 박 대표는 금융인 출신이다. 1990년대 한참 잘 나가다가 IMF 외환위기로 회사를 떠나게 됐다. 이때 양조업에 뛰어 들었다. 1970~1980년대 80%에 달했던 막걸리 점유율이 3%로 떨어졌을 때다.

그가 막걸리 사업에 뛰어든 것은 오로지 막걸리가 좋아서다. 박 대표는 “젊었을 때부터 막걸리를 즐겼다. 가격도 저렴해 가끔은 식사 대용으로 마셨다. 막걸리 양조장에서 일하는 친척에게 부탁해, 배달시켜 먹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냥 막걸리가 좋았던 것은 아니다. 세계화의 가능성을 봤다. 박 대표는 “조상에 물려받은 유물 가운데 세계화를 할 수 있는 대표 식품이 막걸리”라고 강조하며 “쌀이 주식인 나라는 모두 술의 출발이 막걸리”라고 잠재력을 확인했다.

●**금융인의 막걸리 전문가 탈바꿈** = 2000년 양조장을 인수한 박 대표는 막걸리 생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때론 맛이 달랐다. 때론 밋밋하고 때론 너무 걸쭙했다. 단맛 정도 역시 때론 달랐다. 이래선 충성고객을 확보할 수 없었다.

박 대표는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지 않으면 명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양조장으로 들어갔다. 이때부터 2~3년간 막걸리와 싸웠다.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뒤졌다. 일제강점기에 나온 서적들의 내용이 자세하고 정확했다. 서적들을 읽으며 효모를 이해했다.

그리고 막걸리를 담그고 남는 폐수를 연구했다. 어떤 조건에서 발효가 빠르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마침내 최적의 맛과 품질을 구현할 수 있는 곰팡이 배양 환경을 찾아내 표준화에 나섰다.

박 대표는 “술 빛는 기준의 표준화를 위해 셀 수 없이 많이 실험했다”며 “횃수만 수십 번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균등한 품질 구현이 쉽지 않자, 이번에는 시설 개선에 나섰다. 일정한 온도 유지 그리고 위생 관리 목적이었다. 비위생적 운영은 균등한 품질에 악영향을 미쳤다. 모든 과정은 돈과 직결됐다. 당시 회사의 판매량은 미미했다. 박 대표는 “이미 은행 대출을 모두 이용한 상태였다”며 “직원 월급날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돈을 꾸는 게 일상이었다”고 회고했다.

금주의 무역인 박성기 우리술 대표



박성기 우리술 대표는 막걸리의 세계화를 기치로 내세워 창업했다. 박 대표가 경기도 가평 회사 전시 공간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술】



우리술은 2010년부터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 올해 수출 300만 달러를 바라본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a센터에서 열린 막걸리엑스포의 우리술 부스 모습. 【사진=우리술】

위기의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에 나선 이유에 대해 박 대표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입점 후 입소문 퍼져** = 우리술이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2005년 대형마트 입점부터다. 탁월한 맛과 일정한 주질로 고객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대형마트에서도 우리술 제품을 인정했고, 덕분에 매출이 빠르게 개선됐다. 2006년 처

음 매출 10억 원을 돌파했다.

인기 상품은 ‘가평자막걸리’였다. 당시 동명의 제품이 여럿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다.

롱런 비결로 ‘꾸준한 연구와 투자’를 꼽았다. 박 대표는 “일정한 주질을 유지하면서도 완전 발효를 이뤄내 병을 흔들어도 술이 넘치지 않는 것은 물론 트림이 잘 안 나오고 깔끔하다”고 소개했다.

차별성 확보를 위해 특허도 확보했다. 잣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잣을 맷돌에 갈아 녹인 것을 특허로 인정받았다.

●**해외에서 통할 막걸리를 찾아라** = 해외시장 개척은 2010년부터다. 그전에도 국내에서 맛을 보고 몇몇 해외 바이어가 수입했지만, 물량은 많지 않았다. 당시 유통기한이 긴 살균막걸리는 맛이 밋밋하고 특유의 톡 쏘는 맛이 없었다. 수출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때 다시 도전했다. 막걸리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살균막걸리를 찾기 위해서다. 박 대표는 “만들어 낸 막걸리가 족히 100가지는 넘을 것”이라며 “모든 과일, 견과류 등 안 넣어본 것이 없다. 외국인 대상으로 시음해 보고 반응이 안 좋으면 다시 도전했다”고 밝혔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 마침 2010년부터 일본에서 막걸리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었다. 2012년에는 막걸리 수출 협의회가 결성됐다. 일본에서 로드쇼를 개최했는데 큰 반향을 일으키며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박 대표는 초기 부회장을 맡았고 2014년부터는 협의회 회장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아시아 시장을 돌며 한국산 막걸리 시음회, 로드쇼,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도전 없는 성공은 없다’** = 박 대표는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데에는 ‘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지 묻자, “도전을 안 하면 결국 고사 위기를 맞는다. 계속 투자해야 살 수 있다”며 “실패를 예상하면 안 된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안 되는 이유를 하나 알게 된 것이지 절대 패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회사의 모토가 ‘도전’이라고 소개했다.

회사는 2010년부터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다. 2017년 수출 100만 달러를 돌파했고, 2022년 200만 달러를 넘었다. 올해 수출 목표는 300만 달러다.

정부의 막걸리에 관한 관심을 요청했다. 박 대표는 “한류 분위기가 뜨겁지만, 주류는 ‘소주’만 알려졌다. K-드라마에도 막걸리가 안 보인다”며 “국제행사에서도 와인을 주로 마시지, 막걸리를 마시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막걸리는 특유의 양조 과정 그리고 흔들어서 마셔야 하는 이유 등 스토리가 많아, 해외에서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수출국은 대략 35개국이다. 아시아 대부분에 진출했고, 북미와 유럽도 개척했다. 지금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시장 개척에 힘을 쏟고 있다. 박 대표는 “회사명을 우리술로 정한 것은 막걸리 세계화를 위한 결정이었다”며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수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나라에서 막걸리를 애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10년 이내에 100개국에 막걸리를 수출하겠다”며 “우리술이 막걸리를 통해 즐거움을 주는 기업으로 인식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준배 기자

신통상시대 무역협정의 초상

관세 장벽 제거 넘어 '다층적 국제공조' 시대로 간다

교육 · 홍보 통해 협정 활용률 제고하고 지원제도 개편

경제안보 · 공급망 등 새로운 국제 협력 니즈에 발맞춰

오늘날 지정학적 긴장의 고조와 디리스크,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을 겪으면서 그간 글로벌 경제의 관세 장벽을 낮추는 데에 힘써왔던 '자유무역' 패러다임은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ESG 등의 규제와 기술통제 등 비관세 장벽도 높아졌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과 방안들이 담겼다. 굵직하게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전 세계 GDP 90%까지 세계 1위로 도약 ▷글로벌 사우스 공급망 협력 확대 ▷대선 앞두고 대미 아웃리치 강화 등의 청사진을 내세웠다.

여기서 더욱 나아가 정부는 향후 무역협정의 적용 지역과 다루는 분야를 더욱 넓혀 고도화·다변화하고 협정 활용률 제고를 위해 이행채널 가동과 활용지원 개선을 거듭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급망·기후·경제안보 등 통상이슈의 다자협력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 기존 관세 철폐 위주의 FTA를 대체하는 새 무역협정들도 내세울 예정이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같이 직접적인 관세 혜택은 없어도 무역·투자·환경규제·공급망 등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꾀하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가 대표적이다. FTA에 거부감을 가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경제동반자협정(EPA) 등의 협력 모델도 강구되고 있다.

최근 통상당국은 지금까지 비주력시장

으로 남아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TIPF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TIPF는 구속력이 없는 협약이기에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오랜 시간을 들이기 보다는 공급망이나 그린, 디지털, 바이오 등 통상 현안을 부담 없이 논의 후 즉각적인 협력방안을 찾자는 취지이기에 체결이 비교적 빠르고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에만 아랍에미리트(UAE)와의 TIPF 체결을 시작으로 ▷도미니카공화국 ▷헝가리 ▷바레인 ▷폴란드 ▷마다가스카르 ▷우즈베키스탄 ▷핀란드 ▷에티오피아 ▷카자흐스탄 ▷카타르 ▷브라질 등 12개국과 TIPF를 맺었다.

올해에도 투르크메니스탄 등과 TIPF를 맺은 데 이어 지난 8월 23일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에서 하비에르 히메네스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파라과이 TIPF'를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통상·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정부협력채널로 최초 구축한 것으로, 메르코수르 국가와의 TIPF 체결은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지난해 파라과이 신차 모델별 점유율에서 상위 20대 모델 중 한국산이 40%인 8대를 차지하고, 우리 자동차용 케이블 제조업체가 현지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 제조·수출기업으로 성장한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파라과이로의 수출 확대와 메르코수르 역내 제조업 진출 거점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이날 체결식 직후 이어진 한-파라과이 통상장관회담에서 양측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TIPF 활용방안 ▷산업·

에너지 협력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진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TIPF 산하 무역투자협력위원회(TICO)를 통해 협력 의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인교 통상협력본부장은 "이번에 구축한 파라과이 산업통상부와의 협력채널은 양국이 통상, 산업, 에너지 분야 경제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가기 위한 발판을 최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양국 간 실질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역협정, 발효보다 중요한 것이 '활용' =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무역협정을 맺었다고 끝이 아니라 기업이 이를 활용해 혜택을 보아야 의미가 있는 법이다.

이미 지난해 걸프협력회의(GCC)·에콰도르·파테말라 등과의 무역협정이 타결돼 향후 발효를 앞둔 상황에서 새 협정들을 활용하려는 기업들을 위해 산업부는 향후 FTA 종합지원센터 기능 확대·강화로 신통상규제 대응을 지원하고 FTA 활용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1380' 통합 콜센터를 개편하고 지원기관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문·전담인력 양성·확보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우리기업의 통상대응역량을 높일겠다는 것이다. 무역조정지원제도 또한 일회성 단기 자금 융자에서 전문기관의 '기술·경영 혁신지원(technical assistance)' 중심으로 개조해 중소·중견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특히 한국무역협회는 아랍권과의 첫 무역협정인 한-아랍에미리트(UAE) CEPA

발효가 임박한 가운데 수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속한 발효와 함께 수출기업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협정은 지난 5월 정식 서명 후 정부의 비준 동의안 제출 전 단계에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9월 3일 발간한 '한-UAE CEPA 주요 내용 및 우리 수출기업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UAE CEPA 체결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그 부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가 최장 10년 내 철폐되어 해당 분야의 수출 촉진이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 게임·의료 등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고, 국경 간 데이터 이전 허용과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 디지털 규범도 높은 수준으로 합의되면서 K-콘텐츠의 현지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2023년 기준 UAE 수출의 6.5%를 차지하는 기타 차량용 부품에 대한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됨에 따라 우리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의 직·간접적 수혜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리드차(HEV)와 전기차(EV) 관세는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철폐될 예정으로, 현재 활발히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는 UAE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미국·중국·일본·EU 등이 아직 UAE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한-UAE CEPA를 활용해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수출기업들은 아직 이에 관련한 정보와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협회가 최근 3년간 UAE 수출 실적에 있는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UAE CEPA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는 응답(35.4%)이 '잘 알고 있다'는 응답(12.3%)보다 약 3배가량 많았다.

또한, 응답기업의 절반이상이 한-UAE CEPA의 최우선 과제(복수 응답)로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57.9%)'을 꼽았고, ▷현지 시장 정보 제공(55.6%) ▷CEPA 협정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49.7%)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구체적인 홍보 방안(복수 응답)으로 업계는 ▷설명회 개최(65.2%) ▷교육자료 등 책자 발간(40.1%) ▷개별 안내(32.8%)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금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UAE는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한류 효과도 두드러지는 매력적인 수출시장"이라면서 "한-UAE CEPA 선점 효과의 조기 실현을 위해 남은 비준 절차를 가속하고, 기업 수요에 맞춰 홍보 및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채 기자



8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피크 스위트룸에서 하비에르 히메네스 파라과이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이 방한한 가운데 '한-파라과이 TIPF'가 체결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TradePro

디지털 무역상담 플랫폼

TradePro란?

손쉽게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비대면 무역상담 플랫폼입니다.



전화상담



채팅상담



오픈상담

접속방법

Tradepro.kr



- 1) PC / Mobile / Tablet : tradepro.kr 바로 접속!
- 2)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kita.net) 접속 후, TradePro 클릭!

상담분야



무역실무



관세/통관



계약/클레임



세무/회계



특허/상표



기타

초보 수출기업을 위한 안전수출 가이드 (26) 수출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수출계약서를 잘 작성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인코텀즈 적용 시 계약에 명시해야 CISG보다 우선 협의 여의치 않으면 중재 이용하는 편이 비용 절감

분쟁 발생 시 판단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이 수출계약서이다. 이번 호에서는 수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린다. 수출계약의 개요와 주요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제13회에서 소개한 바 있다.

계약서는 통상 어느 일방이 초안 작성을 주도하고 상대방 수차례의 의견교환을 통해서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가능하면 초안 작성을 주도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최대한 자사에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행이 어렵거나 자사에 치명적인 손실을 불러올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CISG의 적용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해서는 체약국(2024년 8월 기준 97개국,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는 대체로 체약국일 것임)인 경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의 적용을 받게 된다. 1개국 또는 양당사자국이 비체약국이면 국제사법 규칙에 의해 체약국법이 되는 경우(당사자가 명시적으로 CISG를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등)에는 CISG가 적용된다.

상대국이 비체약국이라도 체약국법이 준거법이면 CISG가 적용된다. 그러나 CISG 비체약국 소재 상대방과 거래 시에는 계약서에 CISG 적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CISG는 매매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인코텀즈의 적용 = 국제협약인 CISG와 달리 국제상업회의소(ICC)의 무역거래 규칙인 인코텀즈는 임의규칙이기에 적용하고자 하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인코텀즈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통상적으로 인코텀즈가 CISG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물론 인코텀즈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서 다른 조건을 정할 수는 있다.

인코텀즈(Incoterms 2020)에서는 수출입자 간 물품의 인도조건, 물품에 대한 위험분기점, 비용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 운송·보험·통관의무의 당사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11개 정형거래조건을 통해서 비용과 의무의 분기점을 정하고 있는데, C조건(CIF, CIP, CFR, CPT)에서는 비용 분기점과 위험 분기점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상운송인 경우 통상 FOB와 CIF가 많이 활용되는데 FOB는 본선

적재를 기준으로 매도자로부터 매수자로 위험과 비용부담이 이전되고, CIF에서는 본선 적재 시에 위험부담은 매수자에게 이전되지만, 도착항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는 매도자가 부담해야 한다.

●클레임의 예방 및 처리 = 수출입자간 분쟁이 발생(주로 품질과 선적지연으로 인한)하면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앞으로도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해결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소송보다는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중재는 소송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단심제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중재는 해당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에 의해서 판정이 내려진다는 장점이 있다.

수입자와 협상에서 준거법 등은 양보하더라도 가능하면 중재기관은 가까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또는 글로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국제상공회의소(ICC)의 국제중재재판소, 런던 국제중재재판소 등으로 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준계약서의 참고 = 이하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제공하는 국제 표준계약서 샘플 양식이다. 참고해서 활용하면 유용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개 PO, Offer sheet, Proforma Invoice 등으로 계약서를 갈음하거나 아래 샘플 양식의 Specific conditions 정도만 명시해서 계약서를 체결할 것이다.

그런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클레임의 제기 사유 및 기간, 중재조항, 인코텀즈 적용조항만이라도 포함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클레임 제기 기간은 물품마다 다를 것이나(농산물 짧고 기계류 길고), 수출자는 가능한 한 짧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리 길더라도 외상거래에서 외상기간보다 클레임 제기 기간이 길어지면 곤란하다.

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할수록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수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주현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문위원

happyojh@gmail.com

저서 : 따라하면 돈 되는 수출 첫걸음

SALES CONTRACT

A. SPECIFIC CONDITIONS

Contract Date : [ex: 1 June 20XX]
Contract No. : [ex: KCAB-20XX-06-XX]

[Seller's name & addr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he Seller"), hereby confirms sale to [Buyer's name & addr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he Buyer"), and the Buyer confirms purchase from the Seller, the following good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after set forth.

ITEM NO.	COMMODITY &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AMOUNT

- Time of Shipment : By [ex: 30 September 20XX]
- * Cancellation Date for Late Shipment : [ex: 15 October 20XX]
- Port of Shipment : [ex: Busan Port, Korea]
- Port of Destination : [ex: L.A. Port, U.S.A.]
- Partial Shipment : Allowed [], Not Allowed []
- Transshipment : Allowed [], Not Allowed []
- Delivery Terms : [ex: FOB Busan] Incoterms 2020
- Payment : T/T (Telegraph Transfer) within [] days from B/L(AWB) date
- Insurance : Under CIF (or CIP), the Seller shall arrange cargo insurance in accordance with CIF (or CIP) of the latest Incoterms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Packing : [ex: Export Standard Packing]
- Marking : []
- Documents Required :
- [ex: Full set of Clean on Board Bills of Lading]
- Other :
- These Specific Conditions are subject to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below.

	The Seller		The Buyer
By	[Seller's name]	[]	[Buyer's name]
Address	[Seller's address]	[]	[Buyer's address]
Signature	[]	[]	[]
Name	[]	[]	[]
Title	[]	[]	[]

B.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 Article 1. General
Thes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re intended to be applied together with the Specific Conditions. In case of contradiction between thes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Specific Conditions agreed between the parties, the Specific Conditions shall prevail.
- Article 2. Quantity, Article 3. Shipment, Article 4. Packing and Marking, Article 5. Insurance, Article 6. Payment, Article 7. Inspection, Article 8. Warranty
- Article 9. Claims
1. Any claim by the Buyer of whatever nature arising under this Sales Contract shall be made by facsimile, cable, or e-mail within [] days after arrival of the goods ~ (이하생략)
- Article 10. Remedy, Article 11. Force Majeure, Article 12. Patents, Trade Marks, Designs, etc., Article 13. Governing Law
- Article 14. Arbitration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Sale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laws of Korea.
- Article 15. Trade Terms
All delivery terms provided in the Contract shall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latest Incoterms of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초보 무역인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상사중재

New 왕초보 무역



한국의 수출업체 A사는 남미 소재 업체에 휴대전화 부품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대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상대 업체에서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A사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해보려 하였으나, 상대 업체는 뒤늦게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A사 담당자 박무역 과장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만, 지리적으로도 멀고 법과 제도도 생소하기만 한 남미의 상대 업체 소재국까지 가서 법적인 조치를 한다는 것은 업무가 나지 않는다. 고민만 하면서 상대 업체와의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면 박무역 과장은 계약체결 시 분쟁이 생기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던 점을 기억해냈다. 과연 중재는 무엇이고, A사가 이번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소송과 마찬가지로 분쟁해결 효력

중재라는 말은 일상적인 용례에서는 서로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킨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지만, 위 사례에서 언급되었던 분쟁해결 제도로서의 중재는 이와 다른 의미를 갖는다.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중재(arbitration)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최종 해결하는 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분쟁을 법원의 소송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라고 하며, 이에 중재, 조정, 알선 등이 포함된다.

중재라는 말의 일상적인 용례의 연장선 상에서,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중재도 법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강구해 보는 절차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중재는 법원 소송에 의하지는 않지만, 소송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분쟁해결의 효력을 가지며, 이러한 점에서 중재와 소송은 '선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일'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원 소송보다 유연하고 우의적 해결

이러한 중재제도의 특징으로 언급되는 요소로는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중재는 당사자의 자율성에 기초한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분쟁해결제도이다. 중재는 당사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중재인이 내린 판정에 승복하여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합의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국가별 사법기관의 엄격한 소송절차 등에 구애됨이 없이 절차의 다양한 요소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효율성,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합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반적인 절차 진행도 법원 소송절차에 비해 유연하고 탄력적이어서,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며, 이 과정에서 우의적인 해결 가능성도 있다.

둘째, 중재는 신속하고 경제적이다. 중재는 단심(單審)의 절차로 진행되어 일반적인 법원 소송절차에서와 같은 2심, 3심의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며, 중재인의 판정이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장기간의 분쟁이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 사업상의 각종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중재는 비공개이다. 중재절차는 분쟁의 당사자, 중재인 등 절차 관계자 외의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분쟁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의 유출이나 대외 신용도 하락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넷째, 중재는 전문적이다. 중재절차에서는 중재인(arbitrator)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분쟁에 있어 양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에 대해 최종적인 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중재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선정된다. 국제상거래, 건설, 금융 등 개별 분쟁의 유형에 따라, 해당 분야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중재인들이 많다. 이러한 전문가 중재인을 선정함으로써 분야별 특성, 거래실무, 상관행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국제상거래 분쟁 해결에 특히 적합

다섯째, 중재는 국제상거래 분쟁의 해결에 특히 적합하다.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국제상거래 분쟁의 경우, 이를 한 국가의 법원에서 해결하

(국제거래)

Any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three] The seat, or legal place, of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Seoul/Republic of Korea]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language]

(국내거래)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는데 번거롭고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복잡한 서류송달, 외국 사법제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의 부족, 집행 절차의 어려움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국제중재의 경우 송달을 포함하여 제반 절차를 당사자들이 합의한 방식에 따라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널리 통용되는 국제 관행이 존재하고 절차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절차 진행에 대한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협약(뉴욕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라도 몇 가지 중재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협약 체결국 간에 손쉬운 집행이 보장된다. 즉, 한국 중재기관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후, 해외의 상대방이 자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소재국에서 손쉽게 해당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뉴욕협약에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전세계 주요 교역국 대다수를 포함해 총 169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중재조항

중재는 법원의 소송과는 달리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라고 한다. 중재 합의에는 기본적으로 중재회부 의사가 명목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당사자 간에 서

명·작성된 문서 또는 교환된 문서·자료 등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기관 등 중재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중재합의는 계약서상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은 표와 같다.

중재합의는 문서의 명칭에 상관없이 주요 거래조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 작성·교환되는 문서에 중재조항으로 포함될 수 있고, 분쟁 발생 후에 별도의 합의서 형식으로 작성될 수도 있다. 다만, 부정확하고 불완전하게 중재합의가 작성되는 경우(존재하지 않는 중재기관 등) 중재절차 진행 등 분쟁해결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중재합의가 작성된 상태에서 당사자 상호 간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생길 경우, 분쟁 당사자는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재합의에 기재된 중재기관에 중재비용 예납과 함께 중재신청을 함으로써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합의된 절차(중재기관 규칙 등)에 따라 중재를 제기하는 신청인과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은 각각 신청의 취지, 답변, 관련 이유 및 근거 등을 기재한 신청서, 답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중재인을 선정하고, 중재심리를 개최하여 중재인이 당사자의 주장을 청취하게 된다. 그리고 중재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인 효력을 갖는 중재판정을 내림으로써 중재절차는 종결된다.

국내의 상설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제도와 관계된 각종 상세 정보, 절차규칙, 서식자료, 분야별 표준 계약서 양식 등을 홈페이지(www.kcab.or.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주선하는 알선, 각종 상거래 분쟁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문의 02-551-2000).

*이 기사는 감사기 대한상사중재원 홍보교육팀장이 한국무역신문에 기고한 글을 재연재한 것입니다.

tradeKorea.com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B2B 거래알선 플랫폼



• tradeKorea에 상품을 등록하고, 221만+ 해외바이어와 만나보세요 •

국내 최대 규모 셀러-바이어 DB 보유

품목별 해외수출 전문가가 B2B 바이어 매칭부터 실제 계약 체결까지 1:1 밀착 지원 및 초기 수출기업 대상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



누적 바이어 DB
221만+



연 평균 방문자수
470만+



연간 바이어 매칭 수
14,000+

(2023. 12 기준)

tradeKorea 회원 전용 주요 매칭·마케팅 서비스



타겟 바이어 거래 제안

221만+ 해외 바이어 DB에서 수출 희망 국가·품목의 바이어를 검색하고 거래제안서를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셀러 스토어 제작 지원

해외 마케팅 및 바이어 인콰이어리 수신에 활용 가능한 기업용 온라인 스토어를 무료로 제작해 드립니다.



해외 구매 오피

tradeKorea가 발굴한 해외 바이어들의 구매 수요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거래알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온오프라인 마케팅

해외 품목별 주요 전시회 참가, 인플루언서 영상 제작, SNS 홍보 등을 지원합니다.



이달의 유망 바이어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만 이용 가능

매달 글로벌 유망 바이어 3개사를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국내기업과 상시로 거래알선을 지원합니다.



AI 기반 주간 자동매칭

기업정보, 활동정보 등 데이터를 분석하여 매주 새로운 바이어를 자동 매칭해드립니다.

서비스 문의

☎ 콜센터 : 1566 - 5114 ✉ 이메일 : tradeKorea@kita.net



tradeKorea 국내기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다양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차례 반려된 원산지증명서, 2주 만에 해결하다

한국무역신문은 이번 호부터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의 도움을 받아 '2024 FTA 활용 성공 사례'를 연재합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남양주 소재 가업승계 기업인 A사는 1994년부터 30년간 일본에 아크릴 파이프를 수출했다. 이 회사는 일본의 아크릴 파이프 독점적 유통 사업자와 손을 잡은 덕분에 장기간 꾸준히 수출할 수 있었다.

A사는 캐스팅 및 압출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파이프, 이형압출 등을 생산한다. 이미 1990년대부터 일본 기업과 기술 제휴를 통해 최고 품질의 아크릴 파이프를 만들었고 일본의 엄격한 품질 규격도 통과했다. 일본 진출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로 다양한 규격과 색상의 상품을 개발해 수출 중이다.

RCEP 발효 후 빅바이어의 첫 요구

A사는 약 30년간 일본에 안정적으로 아크릴 파이프를 공급했다. 그러던 중 2022년 어느 날 바이어가 새로운 요구를 해왔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맞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것이었다.

RCE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 호주·뉴질랜드 2개국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다. 2020년 11월 최종 타결됐고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2월 발효됐다. 일본 바이어는 RCEP 발효 직후에 바로 제도의 활용을 요구한 것이다.

직접 발급하려다 다섯 차례나 반려

장기간 일본에 수출해 온 A사는 바이어의 요구에 당황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도가 막 시행돼서 그런지, 관세사에게 문의하니 '절차가 복잡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사의 장 대표는 난감했다. 일단 인터넷을 검색했고 다행히 RCEP 시행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이 나와 있었다. 장 대표는 하나씩 따라했지만 발급이 쉽지 않았다. 바쁜 시간을 쪼개 절차를 밟았는데, 1주일 동안 무려 5번이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거절된 것. 장 대표는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일을 직원들에게 무작정 시킬 수는 없다. 일단 제가 충분히 이해한 후 직원들에게 공유하려고 했는데, 저 자신이 이해를 못 했다"고 토로했다.

장 대표는 이전에 몇 차례 간접수출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서류를 작성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전혀 판판이었던 것이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제공】

■ A사 수출품목 및 FTA 실익

수출국	일본	
품목명	아크릴 파이프	(HS 코드) 제3917.29호
제품 특성	아크릴 재질 경질 파이프	
FTA활용실익(관세율)	실행(3.9%) → 협정(2.8%)	

■ A사 FTA 활용 성과



다. 장 대표는 "협력사가 요청한 서류는 작성하라는 것만 적으면 됐지만, 제가 직접 작성하려고 하니 막히는 부분이 많았다"며 "심지어 통화를 원화, 달러, 엔화 가운데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 분간이 안 됐다"고 말했다. 어려움을 겪던 장 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경기 FTA 통상진흥센터의 '기업방문 컨설팅' 사업에 대해 소개받고, 신청했다.

방문 컨설팅으로 큰 틀 잡혀

컨설팅은 대면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장 대표는 "초반에 두 번의 방문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해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발급 절차를 당한 것이 오히려 학습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컨설팅은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우선 수출물품을 확인했다. 아크릴을 기본재료로 하여 파이프 형상으로 제조한 물품이었다. HS 코드를 찾기 위해 재질·용도 등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했다.

컨설팅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HS 코드를 확인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류를 하나 발견했다. 그동안 수출물품의 HS 코드를 잘못 기재해 온 것이다. 관행적으로 연질 플라스틱으로 분류했는데 해당 수출물품은 '경질' 플라스틱이었다. 자칫 HS

코드 오류로 인해 FTA 혜택을 보는 데 어려움을 겪을 뻔한 상황이었다. 일본 수입업체는 경질 플라스틱으로 분류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A사의 장 대표는 "컨설팅이 유사한 경험이 많았던 것 같다"며 "HS 코드를 유심히 확인하더니 바로 오류를 찾아냈다. 컨설팅이 없었으면 한참 동안 문제를 찾지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며 안도했다. 컨설팅은 A사에 이런 상황을 안내했고, A사는 수출신고필증상 HS 코드를 바로 정정했다.

관세율 3.9%에서 2.8%로 인하

컨설팅은 바로 새로운 HS 코드를 기준으로 RCEP 제도 적용에 따른 실익을 조사했다. 이 결과 일본업체는 수입 시 기존 관세 3.9%에서 2.8%로 1.1%p의 인하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컨설팅은 이를 A사에 전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후 절차는 어렵지 않았다. A사는 이미 30년 동안 일본 바이어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A사는 직접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시설에서 물품을 만들어 바로 수출했다. 제조 공정 및 투입 원재료에 대한 정보 확인이 바로 진행됐다. 처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A사의 장 대표는 "방문 컨설팅 후에는 이메일과 전화 통화를 진행했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A사는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긴급 요청'을 했고, 덕분에 RCEP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는 총 2주가 소요됐다. 장 대표는 "컨설팅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한 덕분에"이라고 감사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어렵지 않아요

A사는 현재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오류들이 있었지만 모두 '사소한 실수'였다.

A사는 몇 건 오류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과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사용했던 서류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다. 서류 사용기한이 지나서, 발급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또 하나 사례는 상품의 중량 기재 오류였다. 역시 이전 수출 건과 동일하게 중량을 적었다가 오류로 확인됐다.

A사는 RCEP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1.1%p의 관세 실익을 톡톡히 봤다. 회사는 컨설팅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수출 액수가 전년도인 2022년과 비교해 무려 90%가량 늘었다. FTA를 통한 수입 가격 인하로 일본 바이어가 단가를 낮췄고 덕분에 수요처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A사의 장 대표는 "RCEP 덕분에 자연스럽게 수출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해, 일본에서 오더를 추가로 받았다"며 "FTA가 확실히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다"고 밝혔다.

일본 이외 시장 진출 타진

A사는 FTA 제도 효과를 체감하며 일본 일변도의 수출에서 탈피해, 다른 지역으로 수출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장 대표는 "바이어의 관세 혜택을 통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FTA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일본 이외의 시장에서도 바이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컨설팅을 맡은 컨설팅사는 "A사가 FTA를 통해 수출 경쟁력이 향상돼, 일본 시장점유율을 높였다"며 "추후 다른 나라로 수출이 진행되더라도 이번 FTA 활용 경험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해외 판로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사 장 대표는 수출 초보 기업일수록 FTA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장 대표는 "수출 경험 유무를 떠나 중소기업이 스스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한다면 상당히 복잡하게 느낄 것"이라며 "특히 전문가의 FTA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정보를 얻거나 잘못됐던 부분도 고치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이 8월 26일 남태평양 통가 수도 누쿠알로파에서 열린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정상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들, 지정학 긴장 속 위태로운 균형 잡

미중 패권 전쟁 격화로 남태평양·대양주 지역에 세계적 관심 증가 기후 변화·글로벌 은행 접근성 감소·뉴칼레도니아 사태 등 논의돼

지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태평양 도서국 지도자들이 통가의 수도인 누쿠알로파에서 열리는 연례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지도자 회의에 모였다.

포럼에서는 기후 변화, 디뱅크, 뉴칼레도니아 사태 등 여러 시급한 문제들이 논의됐다. 소위 말하는 '태평양 방식'에 따라 회원국들은 각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상회담에 참가했다.

최우선 논의사항 문제는 역시 기후 변화다. 태평양 도서국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기후 변화 피해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 환태평

AP통신은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서 대표단에 기념품으로 제공된 금속 물병에 '플라스틱 물병 하나 줄임(one less plastic bottle)'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으나 해수면 상승과 자연재해 때문에 빗물과 지하수가 오염돼 회의와 식사마다 플라스틱 물병이 보급됐다고 보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6일 개막식 연설에서 "인류가 바다를 하수구처럼 취급한다"고 비난하고 이튿날인 27일 기후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해수면 상승은 전적으로 인류가 만들어낸 위기로, 곧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커져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구명정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주요 회의 주제 중 하나는 호주 브리즈번에 설립될 예정인 태평양 경찰 훈련센터가 있다. 이는 호주가 주도하는 '다국적 태평양 경찰' 구상의 초석이기도 하다. 중국이 일부 태평양 도서국과 지역 안보 면에서도 가까워지려는 시도에 대한 견제로도 해석된다. 중국은 솔로몬 제도나 키리바시 등 섬나라와 개별적으로 치안력 제공 등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디뱅크(debanking)'로 불리는 태평양 전역의 글로벌 은행 접근성 감소도 중요한

문제다. 인구 1만3000명 미만의 태평양 소국 나우루에서는 이르면 2025년 중반부터 국제 은행 결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나우루에서 유일하게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주 벤디고 은행은 올해 말 나우루에 있는 대리점을 폐쇄할 방침이었으나, 중국 국영은행이 2024년 3월 폐쇄로 인한 공백을 메우고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후 2025년 6월까지 퇴거를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열린 태평양 도서국 포럼에서는 세계은행이 태평양 지역의 상응하는 은행 쇠퇴를 연구하고 이 지역의 국제 은행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는 태평양 국가들과 디뱅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보장하기 위

해 태평양 은행 포럼을 출범시켰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 사무국은 또한 미국 재무부와 특파원 은행 관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화를 지원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 국영은행의 태평양 도서국 진출 시도에 대한 견제로 풀이된다.

가장 위중한 문제 중 하나는 프랑스 자치령 뉴칼레도니아에서 계속되는 불안이다. 오랜 독립운동과 이를 진압하려는 프랑스의 압력으로 5월 치명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회담을 앞두고 태평양 도서국 지도자들은 수도인 누메아를 방문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여기에 또 다른 미중 패권 갈등의 뇌관인 대만 이슈도 끼었다. 폐막일인 30일 채택한 정상성명에 담은 '대만을 개발 파트너로 재확인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하루 만인 31일 삭제된 것이 그 일례다.

요미우리신문은 포럼에 파트너국으로 참가한 중국이 강한 반발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9월 2일 보도했다. 당초 성명에는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1992년의 결정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된 성명은 삭제제를 요구하는 중국의 항의 이후 열람할 수 없게 됐다. 31일

남태평양 섬 지역, 미중 영향력 경쟁 판정승은?

호주, '다국적 태평양 경찰' 구상 실행에... 중국은 대만 언급 지워내

지난 8월 마지막 주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에서 열린 태평양 도서국 포럼은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 중 하나로 평가된다. 포럼 내에서 가장 큰 위상을 자랑하는 호주를 내세운 미국과 역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국이 한 판 붙은 자리였다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8월 31일 이에 대해 '호주의 정치적 승리' 속에 중국에서 약간의 견제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호주가 포럼 기간 중 '다국적 태평양 경찰' 창설에 대한 지지를 얻어낸 것을 두고 이 지역에서 중국의 안보적 존재감을 줄이기 위한 '외교적 쿠데타'라고 표현했다.

다국적 태평양 경찰 설립을 위해 역내에 최대 4개의 훈련센터가 설립되고 약 200명으로 구성된 다국적 위기 대응 부대가 창설될 예정이다. 호주는 앞으로 5년간 훈련센터 구축에 약 4억 달러를 지원하며 브리즈번에 경찰력 개발·조정 허브를 설립할 예정이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8월 29일 "모든 당사국이 태평양 도서국의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태평양 경찰 창설 합의로 태평양 가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시드니 공과대 호주-중국 관계 연구소의 분석 책임자인 엘레나 콜린슨은 "호주의 전략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태평양 포럼 폐막 성명의 대만 언급을 삭제한 데에서 드러났지만, 호주의 영향력이 아직은 이 지역에서 더욱 우세함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주는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정식 회원국이다. 안보 면에서 미국과 함께 의존하는 역내 국가들이 많다. 그러나 중국은 '다이어로그 파트너' 국가임에도 경제적인 지

원과 일부 치안력 제공 등을 통해 이 지역에서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는 중이다.

실제로 솔로몬 제도와 같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국가들도 늘고 있다.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고 있는 바누아투의 살롯 살와이 총리는 '다국적 태평양 경찰'에 관한 합의가 발표되기 몇 시간 전 "이 계획은 우리의 목적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며, 주요 강대국의 지정학적 이익에 맞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엘레나 콜린슨은 "도서국들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고려 사항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태평양 경찰' 계획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콜린슨이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그래서다.

● '세계에서 가장 대외원조에 많이 의존하는 지역' = 한편으로 태평양 도서국들이 미중 전략 경쟁에서 중립에 서려고 하지만, 동시에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더 많은 원조를 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파커 노박 연구원은 지난달 게재한 칼럼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이 광대한 해양 지역에 대한 외부 강대국의 관심이 현저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증가하는 지정학적 경쟁과 지리적 관련성 때문"이라며 "미중 관계가 갈수록 대립각을 세우면서 태평양 도서국에서는 양국 간 경쟁이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평양 도서국들은 외교 문제에 대해 '모두와 친구가 되고자 하는 접근법'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들이 역내 경쟁 블록으로 양극화되지 않도록 외부 권력사에서 한쪽 편을 드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원조에 의존하는 지역이며, 더 많은 양의 원조를 위해 협상하기 위해 지정학적

관심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태평양 도서국들로부터 나오는 이러한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며 타국의 체스말이 되고 싶은 나라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지정학적 책략에 면역력이 있다는 생각은 실제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이 직면한 많은 주요 문제들은 부인할 수 없는 지정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해저 케이블들과 같이 지역별 접근성을 높이는 인프라 프로젝트는 어려운 연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일로 꼽힌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기부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의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지만, 단순히 선행을 하고자 하는 이타적인 욕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계산에 의해서도 추진된다.

호주 싱크탱크 로우연구소의 태평양 원조 지도(Pacific Aid Map)에 따르면 이 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총금액은 2010년대 중반부터 데이터가 제공되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호주는 여전히 이 지역에 가장 큰 원조 제공국이며, 중국은 일부 세간의 인식과 달리 공식적인 개발 지원을 축소하고 보다 표적화된 접근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팔라우와의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정책 결정 과정의 잡음으로 인해 갭신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약속된 원조 제공에서 더딘 걸음을 보이고 있다.

파커 노박 연구원은 "이 지역 국가들은 이 새로운 관심을 환영하고 있지만, 그들은 외부 당사자들이 지정학에 대해 친절하게 강요하는 대신 그들의 견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채 기자



【쿠알로파=AP/뉴시스】

합기 나서

에 갭신된 성명에서는 대만에 관한 언급이 통째로 삭제됐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은 출범한 지 수십 년 동안 그리 알려지지 않은 회의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상황이 바뀌었다. 중국이 이 지역에 경제적인 원조를 통해 다가서면서 역내 지도자들과 외교·안보 협정을 맺는 등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의에도 중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에 맞서 미국도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을 위시한 대규모 대표단을 꾸렸다. 미국과 중국은 이 지역에 관심이 있는 '다이어로그 파트너' 중 하나다. 포럼에 다이어로그 파트너로서 참가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대기줄이 더 있었지만, 21개국으로 마감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한때 포럼 의장을 지냈던 마크 브라운 쿡 제도 총리는 지난달 '아일랜드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지정학적 관점에서 우리 지역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우리의 더 큰 개발 파트너들이 보는 안보 문제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보 문제는 같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채 기자



8월 26일 태평양의 섬나라 통가의 누쿠알로파에서 열린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개막식에 섬나라 정상과 대표들이 참석하고 있다.

【누쿠알로파(통가)=AP/뉴시스】

[신간] 보디 리셋

생채식 먹고, 맨발로 걸으면 만성질환 치료에 도움

19세기 초반, 서구 열강은 산업혁명에 힘입어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다. 산간벽지에 철도가 깔렸고, 도시 공장에서 수많은 제품이 만들어졌다.

문명은 크게 발전했지만, 건강의 측면에선 오히려 퇴보했다. 결핵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날 사망률 1위는 암이지만, 19세기에는 결핵이 압도적인 1위였다. 그러다 1850년대부터 결핵환자가 감소하더니 19세기 말이 되자 급격하게 줄었다.

치료제 때문은 아니었다. 결핵 치료제인 스트렙토마이신은 결핵 유행이 한참 지난 1946년 출시됐기 때문이다. 결핵환자가 급감한 이유는 산업화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위생 환경이 깨끗해졌고,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좋아졌으며 주거 환경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외과 전문의이자 조선대 의대 교수를 역임한 전홍준 박사는 결핵 치료에 위생과 주거환경 개선이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체내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만성질환 치료에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신간 '보디 리셋(서울셀렉션)'을 통해서다.

책에 따르면 암, 당뇨, 자가면역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은 "세포와 유전자의 변질"에서 생겨난다.

저자는 "어떤 병이라도 근원을 찾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세포가 고장 나 있다"며 "세포 안에 있어선 안 되는 독성물질과 노폐물, 불순물을 없애고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 체온을 보태는 게 병 치료의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요컨대 병을 없애려면 세포를 건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저자는 음식, 운동, 호흡, 마음 치유 등 4가지 전략을 소개한다. 암부터 감기까지 거의 모든 질병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우선 생채식과 소식(小食)이다. 생채식은 수렵채집 시기에 인류가 그랬던 것처럼 생채소, 생과일, 생곡식, 씨앗과 견과류, 베리류 등을 불로 조리하지도 가공하지도 않은 채 낱것 그대로 먹는 걸 말한다.

이런 생채식을 먹으며 소식하면, 몸 내에서 오토파지(자가포식)가 발생한다. 부족한 열량을 충족하기 위해 신체가 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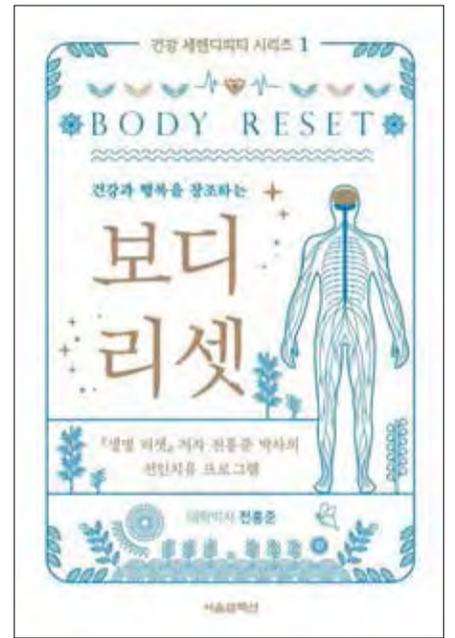
안의 여러 가지 노폐물이나 독성물질을 태워버리는 작용이다. 일종의 대청소가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먹은 후 햇볕을 쬐며 땅을 맨발로 걸으면 도움이 된다. 맨발로 걸으면 몸 안에 있는 '노화의 주범' 활성산소와 독성물질이 발바닥을 통해 빠져나가고, 땅속에 있는 생명 에너지인 자유전자를 얻을 수 있다. 저자는 "햇볕과 땅으로부터 좋은 생명 에너지가 몸에 들어 온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깊게 숨을 내쉬며 들이마시는 복식호흡과 깊고 충분한 수면,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니면 도움이 된다고 저자는 조언한다.

다만,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 이 같은 '자연 치료'에만 매몰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병원 치료도 함께 받을 것을 권한다. 치료에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암 치료를 예로 들며 "수술과 항암요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니 어떤 경우든 계속 그 방법만 써야 한다는 것도 극단이고, 수술이나 항암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니 오로지 자연 치료만 하겠다는 것도 극단"이라고 말한다.

연합뉴스



최영진의 풍경

은밀한 대화

그날 경로당 불도 안 끄고 문도 안 잠고 그냥 갔다고 그놈이 동네방네 떠돌어댄 거야. 아니, 이만저만 하니까 단속을 잘 하라고 나한테 먼저 얘길하는 게 순서지. 이장한테 덜컥 고자질을 하면 내 입장이 뭐가 되냐구. 입이 그렇게 싸더라니깐. 그래서 그날부로 나는 그놈하고 말도 안 해. <사진가>

튀르키예, 브릭스 가입 신청... 10월 정상회의서 논의

튀르키예가 중국, 러시아 주도의 신흥 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에 가입을 신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튀르키예가 이미 수개월 전 브릭스에 가입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튀르키예 행정부는 지정학적인 무게 중심이 선진국 경제에서 옮겨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22~24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튀르키예의 가입 허용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스탄불=연합뉴스

2024년 9월 9일

중국, 인기 끄는 간편식품과 트렌드는?

**상품 다양화·고급화로 수요 증가
오프라인을 추월한 온라인 유통**

중국의 시장조사기업 아이미디어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간편식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2022년 5961억 위안을 기록했다. 2021년 밀키트의 등장으로 간편식품의 종류가 증가했으며 관련 업체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공급하기 시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중국 간편식품 시장은 1조 위안을 돌파할 전망이다.

중국에서 간편식품은 반조리 식품 또는 완제품을 포함해 즉석식품, 냉동식품, 건조분말식품, 통조림, 밀키트, 라면 등 유형이 다양하며 조리과 휴대, 보관 등이 쉬워 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 문화가 줄고 재택 경제,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소비방식이 유행하면서 간편식품 수요 또한 크게 높아졌다.

아이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냉동식품 시장은 2022년 1688억5000만 위안에서 2025년 2130억9000만 위안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증가와 함께 편리하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커지면서 고품질, 고가 냉동식품에 대한 구매력도 강화돼 냉동식품 시장이 더욱 빠르게 성장했다.

중국 냉동식품의 원재료인 곡물과 육류 생산량은 2022년 기준 각각 6억8652만800t과 9328만400t이었으며 해마다 생산량이 늘고 추세를 보인다. 특히 쌀, 밀가루 등은 일반 냉동식품의 주원료로 이들 곡물의 생산량 증가는 곧 냉동식품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의미한다.

중국 냉동식품 생산기업은 주로 허난성, 산둥성, 광둥성 등지에 분포하는데 선두 기업인 썬취엔식품유한공사, 쓰넨식품유한공사 등이 모두 허난성에 소재하고 있다. 허난성 정저우의 냉동식품 산업은 중국 전체의 6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 확대되는 시장 수요에 맞춰 식품업체들은 전통적인 냉동식품인 탕위안, 물만두, 만터우 등 만두류 외에도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한 신제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밀키트는 조리법이 간단하고 종류도 다양해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간편식품 중 하나다. 특히 코로나19 장



나 잡아 보라 몽골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9월 3일 울란바토르 수크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환영식에 오희나 후렐 수흐 몽골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그의 이번 몽골 방문은 작년 3월 ICC 체포영장 발부 이후 ICC 회원국 방문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 이목이 쏠렸다. 푸틴 대통령은 체포되지는커녕 극진한 환대 속 '보란 듯'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했다. 【울란바토르=EPA/연합뉴스】

기화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활기를 띠면서 중국 밀키트 시장도 급성장의 계기를 맞았다. 아이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중국 밀키트 시장은 전년보다 21.3% 증가한 4196억 위안이었으며 2026년에는 1조720억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2002년 2월 중앙문서 1호에서 밀키트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며 각 지방정부도 밀키트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정책에 힘입어 밀키트 생산기업이 늘면서 시장 경쟁도 치열해졌다. 중국의 대표적인 밀키트 기업 웨이즈샹은 주로 육류 관련 제품을 생산하며 치엔웨이양추는 쌀, 밀가루 등 곡물을 주원료로 한 냉동 밀키트 제품, 귀렌수산은 수산물 관련 밀키트를 제조한다.

중국 식품 제조업의 발전과 함께 '1인 간편식', 'Z세대', '재택생활' 등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라면 시장도 팽창하고 있다. 라면은 특히 간편한 조리법과 보관 용이성으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에서 식사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품이다. 2022년 중국 라면 시장은 1823억 8000만 위안이었으며 2025년에는 2312억 3000만 위안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라면 브랜드 캉스푸와 통이는 중국 라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인스턴트 식품 종류가 많아지고 배달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기존의 대표 인스턴트 제품 라면 소비에도 영향이 갔다. 소비자들의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인식 제고로 중국 라면 기업들은 가격대가 높은 고급 제품을 내놓는 등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아이미디어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들이 간편식품에 쓴 돈은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소비 공간도 출장, 여행, 가정, 사무실, 캠핑, 소풍 등 광범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소비자들이 간편식품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로는 '식사시간 절약', '휴대 용이성' 등이 꼽혔다. 종류별로는 '라면과 즉석밥(75.5%)'이 가장 구매비중이 높았고 '즉석식품(74.7%)', '냉동식품(68.1%)'이 뒤를 이었다. '밀키트(28.5%)' 역시 '통조림(37.4%)'에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 소비자가 간편식품을 구매하는 주요 원인은 '맛'과 '기호'가 71.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리 간편성'과 '신속성'이 63.1%로 뒤를 이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71.5%)을 통한 구매비중이 '슈퍼마

켓'(48.8%), '편의점'(49.2%) 등 오프라인 매장을 추월했다. 온 오프라인 유통방식이 공존하면서 기업들도 더 많은 기회를 발굴하고 판매 채널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또 중국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간편식품의 맛, 안전성뿐만 아니라 영양 면에서도 품질 향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간편식품 품질에 대한 업그레이드 수요는 관련 업계에 제품 고급화, 다양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OTRA 무역관과 만난 난징 쉰궈마트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전통적인 간편식품 외에 우렁이 쌀국수, 운남 쌀국수처럼 중국의 지역적 특색이 담긴 새로운 간편식품이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아이미디어리서치 연구원은 "현재 중국의 '95허우'(1995년 이후 출생자)와 '00허우'(2000년 이후 출생자), 즉 1995~2000년 이후 출생자들이 신흥 소비계층으로 떠오르면서 시장 수요도 더욱 세분화, 다양화되는 추세"라며 "식품 기업들은 중국인들의 소비습관과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를 제품 개발에 활용함으로써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난징무역관

AI 기술과 함께 성장하는 미국 재판매 시장

소매업계 최신 트렌드, Z세대 열광 이미지 인식 등 AI 기술 적극 활용

미국 소매업계에서 '재판매(Resale)' 시장은 가장 핫한 분야 중 하나다. 지속가능성과 가치 소비가 중시되는 분위기 속에 핵심 소비층으로 떠오르는 Z세대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인공지능(AI) 기술까지 도입해 고속 성장의 날개까지 달았다.

● **진화와 팽창을 거듭하는 시장** = 재판매 시장은 새 제품이 아닌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 시장을 통칭하는 용어로, 중고 판매, 세컨핸드(Secondhand), 리세일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재판매 시장 초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는 개인 간 거래(P2P)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이베이 같은 중고 직거래 플랫폼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이후 디팍, 포시마크, 트레데시, 오퍼업 등 일정 수수료를 받고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일부 편의를 제공하는 업그레이드된 개인 거래 플랫폼과 마켓플레이스가 등장하면서 재판매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상품의 수집과 보관에서 재판매를 위한 사진 촬영, 가격 책정, 리스팅, 상품 발송 등 모든 과정을 기업이 직접 처리하는 중고품 위탁판매 방식 역시 개인 간 재판매 시장의 확대와 함께 꾸준히 발전해왔다. 이들 위탁 재판매 플랫폼은 주로 주요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중고 패션 아이템의 재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위탁 재판매 플랫폼 스테드업의 '2023년 재판매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미국 중고 판매 시장은 390억 달러에 달했다. 전체 의류 소매시장보다 5배 많은 성장을 이룬 2022년은 중고 판매 시장에 의미 있는 한 해로 기록됐다. 이 시장은 작년에만 26% 증가하는 등 발전을 가속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27년까지 전체 의류 소매시장보다 9배 빨리 성장해 7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재판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미국인이 이용하는 소비채널 가운데 중고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미 소비채널 구성에서 중고 거래는 단 3%만을 차지했지만 10년 뒤인 2022년에는 9%로 급증했다. 2032년 중고 거래 비중은 1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Z세대가 소유한 패션 아이템 5개 중 2개가 중고 제품이고 이들의 83%가 중고 의류 구매 경험이 있는 등 Z세대 소비자는 중고 거래 확대의 핵심 원동력이다.

2022년에는 기존 브랜드들이 자체 재판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례도 급증했다. 이런 브랜드는 2020년 9개에 불과했지만 2021년의 36개를 거쳐 2022년에는 124개로 늘어났다. 이 방식은 각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를 자체 재판매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노출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재판매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가치 있는 소비를 유도한다. 이밖에 중고 상품 구매 니즈가 있는 신규 소비자 확보, 선순환 경제 실천을 통한 지속 가능성 제고, 고객 충성도 향상 등 많은 이점을 가진 브

랜드 재판매 프로그램은 재판매 시장의 중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 **재판매 시장이 주목한 AI 기술들** =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미 재판매 시장은 근래 들어 다양한 AI 기술을 도입하면서 다음 단계로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지 인식 기술이 대표적이다. 'AI 바탕의 컴퓨터 비전'으로도 일컬어지는 이미지 인식이란 사진이나 영상, 라이브 콘텐츠 속의 시각 데이터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기술이다. 한국의 IT 기업 네이버가 소유한 미국의 대표 패션 재판매 플랫폼 포시마크는 지난해 7월 AI를 활용한 이미지 검색 툴 '포시 렌즈'를 처음 선보여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정 이미지와 비슷한 스타일의 상품을 구별하고 검색하는 이 툴은 현재 포시마크 플랫폼에 등록된 약 8000만 개의 아이템을 데이터베이스(DB)로 삼고 있다. 이 툴을 통해 판매자는 자신이 팔려는 상품과 비슷한 상품들의 등록, 판매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상품 등록 과정의 수고를 덜 수 있다. 구매자도 원하는 스타일의 상품을 쉽고 빠르게 찾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AI 기반의 자연어 처리 기술도 주목할 만하다.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수집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은 챗GPT를 비롯한 AI 챗봇의 원동력이 되는 분야다. 패션 아이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중고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재판매 플랫폼 오퍼업은 자연어 처리 기술의 도입을 준비 중이다. 판매자는 상품을 등록할 때

관련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적절한 설명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데 챗GPT와 같은 자연어 처리 프로그램이 이를 자동으로 처리한다면 판매자의 상품 등록 과정이 쉬워진다. 이외에도 상품의 가격, 색상, 사이즈 등에 관한 문의 대응, 즉 '챗(Chat)' 형태의 언어적인 서비스에도 자연어 처리 기술은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의 진위 여부가 특히 중시되는 재판매 시장에서 AI 기반의 머신러닝 기술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루에도 수천 개의 상품이 등록되거나 거래되는 재판매 플랫폼에서 위조 상품을 일일이 검사하고 걸러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때 머신러닝 기술이 사람의 눈으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상품의 미세한 차이나 모순점을 지적해준다. 많은 재판매 플랫폼이 진품과 가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로고의 위치, 패턴, 크기, 특징 같은 상품 검증 알고리즘을 반복적으로 주입시키면서 머신러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개인 간 재판매 플랫폼 이베이는 작년 2월 AI 기반의 위조품 판별 솔루션 기업 3PM셀드를 인수하고 위조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베이는 이 기술을 통해 약 8800만 개의 위조 의심 상품 등록을 차단한 바 있다.

스니커즈 재판매 플랫폼 스타엑스와 중고 명품 위탁판매 플랫폼 더리얼리얼 역시 이런 기술을 통해 넘쳐나는 위조 상품을 걸러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머신러닝 기술은 초기 획득과 적용에 큰 비용이 들어 중소기업이 도입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고 완벽하게 오류가 없다는 보장도 없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 **우리 기업 시사점** = KOTRA 무역관이 만난 미국 전자상거래 업계 K 대표는 "요즘 MZ세대, 특히 Z세대의 젊은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되팔 가능성을 고려하는 듯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 어떤 다른 세대보다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더 고려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분야에는 소비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매우 경제적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가치 있는 소비가 중요하다. 이런 Z세대 소비자들에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선순환을 추구하고 가격까지 합리적인 재판매 시장은 최적의 옵션이 아닐 수 없다. K 대표는 "이는 최근 다양한 중고 판매 플랫폼이나 마켓플레이스가 큰 인기를 얻으며 나날이 발전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KOTRA 무역관은 "미국에서 중고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와 재판매 트렌드가 패션 시장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면서 "미국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은 업계의 선순환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AI 등 첨단 기술 도입에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교황의 이슬람대국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이 9월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탕계랑에 있는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 도착해 야쿠트 출릴 쿠마샤드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의 영접을 받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아시아·오세아니아 4개국 순방을 시작했다. 인구 약 2억8000만명인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약 90%로 세계에서 이슬람 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으며 가톨릭 신자는 전체 인구의 약 3%인 8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자카르타=로이터/연합뉴스】

쿠바, 세계 1위 설탕 생산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

10여 년 전까지 '설탕산업부' 운영
구소련 붕괴 후 생산 점진적 축소
국제 원당가격 10년 만에 최고치

쿠바에는 '설탕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쿠바 경제와 사회, 문화와 설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때 세계 최대 생산량을 자랑했고 2011년까지는 설탕산업만 담당하는 '설탕산업부'가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현재 설탕산업은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의 위용 = 쿠바에 사탕수수 재배 초기인 1523년이다. 그러다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기존 설탕 생산국인 아이티에서 1791년 혁명이 발발함에 따라 지역 대농장주들이 대거 쿠바로 유입된 18세기 말부터다. 이후 쿠바는 아이티를 대체해 주요 사탕수수 재배국으로 부상했다.

19세기 들어 세계적으로 설탕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특히 지리적으로 근접한 미국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쿠바의 설탕 생산량은 1790년 1만4000t에서 1895년에는 100만t로 급증했다. 20세기 초에는 세계 최대의 설탕 생산국으로 올라섰으며 대부분의 설탕을 수출했다.

1900년대 전반에는 최대 소비시장이던 미국이 쿠바 설탕산업에 대한 거의 모든 투자를 담당했다. 미국 기업이 쿠바 내 상당수의 제당 공장을 소유하면서 미국 내 설탕 정제소와의 수직 통합을 완성해 사실상 설탕산업을 지배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쿠바는 미국 시장에서 대규모 쿼터 특혜를 누렸다.

●쿠바 혁명과 구소련과의 거래 = 미국의 쿠바 설탕산업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은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설탕 공장이 국유화되면서 막을 내렸다. 국유화에 따른 배상 문제로 미-쿠바 간 갈등이 고조돼 1962년 미국은 쿠바에 대한 포괄적인 무역 금지 조치를 취해 쿠바산 설탕의 미국 수출을 금지하고 사탕수수 공장용 연료와 기계 수입을 제한했다.

당시 냉전의 긴장감이 급격히 상승하던 시점에서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을 잃은 쿠바가 기댈 곳은 소련뿐이었다. 쿠바와 소련은 1964년부터 1970년까지 파운드당 6.11센트의 고정 가격으로 2400만t의 설탕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소련은 쿠바에 연료와 기계를 지원하는 장기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1963년 이후 국제 설탕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련은 사실상 국제가격의 거의 두 배를 지불한 셈이었다.

이에 1972년 들어 쿠바가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에 가입한 뒤에는 소련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해 세계 시장 가격보다 파운드당 2센트의 프리미엄이 붙은 11센트에 판매하고 그 대가로 석유와 가스를 시장보다 낮은 가격에 공

급받기로 했다.

이 협정 덕분에 쿠바는 1970년대 초와 80년대 초의 국제 설탕 가격 상승세라는 호기를 놓쳤지만 대신 1970년대 말과 80년대 대부분 시기의 가격 하락 그리고 결정적으로 1970년대 세계 경제를 강타한 오일쇼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심지어 가장 생산량이 많았던 1970년대에 쿠바는 세계 설탕 생산의 25%를 차지하기도 했다.

●관광산업의 대두와 설탕산업 구조 조정 = 1997년 관광산업이 설탕을 대신해 쿠바의 최대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한 세기가 넘는 '쿠바산 설탕'의 세계 지배력은 막을 내렸다. 그리고 2001년 미국 9·11 테러로 관광 수입이 급감하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쿠바 정부는 156개 제당 공장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71개를 영구 폐쇄했다. 그리고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아 2005년에 40개의 공장이 추가로 문을 닫았다.

이후 지난 15년간 쿠바의 설탕 생산량은 연간 150만~200만t으로 국내 소비를 충족하고 중국(연간 40만t), 유럽연합(EU)(연간 69만t)과 세계 시장에 원당을 일부 수출하는 수준을 유지했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브라질, 인도의 부상과 맞물리며 1% 밑으로 떨어졌다.

일정 수준을 유지하던 쿠바 설탕산업은 관광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다.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한 관광산업의 급작스러운 침체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외화 수입원이 막

혔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사탕수수 재배에 필수인 기계, 연료, 비료 등을 수입할 만한 외화 부족으로 이어져 설탕산업의 붕괴를 재촉했다. 2021~22년 쿠바의 사탕수수 수확량은 2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수요도 맞추지 못했고 급기야 1800년대 초 이후 처음으로 설탕을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국제 설탕 가격 급등의 비극 = 2021~2022년 쿠바 정부가 계획한 91만1000t 대비 52%에 불과한 48만t의 설탕이 수확되면서 역대 최저 수확에 따른 산업 붕괴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2022~2023년에는 이보다 낮은 45만5000t이 책정돼 쿠바 정부는 더 이상 설탕산업을 희생시킬 만한 역량과 의욕이 부족해 보였다.

하지만 이처럼 낮은 목표에도 불구하고 2022~2023년 생산량은 목표 대비 77%에 그친 35만t로 다시 한번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는데 이는 연간 국내 수요 50만t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후 쿠바 정부는 내수용으로 31만t밖에 배정하지 못해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도 그나마 1인당 월 4파운드 수준의 배급량을 지키던 설탕조차 브라질, 프랑스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문제는 국제 설탕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가뜩이나 부족한 외화 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었다.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원당(原糖) 선물가격은 9월 들어 파운드당 26.6센트로 뛰었는데 이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가

격이다. 주요 수출국인 인도의 주요 생산지에서 강우량이 충분하지 않아 작황이 나빴고 엘니뇨로 인해 가뭄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지면서 인도 정부가 식량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설탕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우려가 반영됐다.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연료로 대량 소비되는 에탄올 가격이 국제유가 급등으로 8월 중순부터 한 달 가까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제당 기업들이 설탕 생산을 바이오 연료에 의존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설탕 공급이 감소한 것도 가격 상승에 일조했다.

●그럼에도 설탕산업은 쿠바의 DNA? = 설탕산업 붕괴가 목전에 다가온 수준을 넘어 사실상 현실화됐지만 쿠바 정부가 국가 경제의 상징과도 같은 설탕산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쿠바 인민권력국국회의 오메로 알바레스 의장은 "설탕 생산량과 수출 감소는 쿠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라며 "국가 경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어 수출 확대와 수입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뼈아프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국영 설탕 기업 아주쿠바의 디오니스 페레즈 대변인은 쿠바에서 설탕산업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한때 쿠바는 설탕 수출 세계 1위 국가였다"면서 "사탕수수는 쿠바 역사의 DNA와도 같으므로 사탕수수가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나 무역관



“얼마나 올랐어요?”

9월 3일 튀르키예 앙카라의 한 시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현지 자료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8월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월 대비 51.97%로 시장 기대치를 약간 밑돌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앙카라=신화/뉴시스】

‘죽어 돌아온 인질 6명’ 이스라엘-하마스 ‘종전’ 이끄나

가자 전쟁 발발 후 최대 시위
네타냐후는 강경 태세 재확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인질 6명이 가자지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분노로 들끓고 있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인질 석방을 위한 즉각 휴전을 촉구한 데 이어 이스라엘 최대규모 노조도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를 압박했다.

●50만~70만 명 참가한 ‘반전’ 시위 = 현지시간 9월 1일 저녁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스라엘 인질·실종자가족포럼은 미국 CNN 방송에 적어도 70만 명이 시위에 나섰으며 텔아비브에서만 55만 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시위 규모가 텔아비브에서 약 30만 명, 전국적으로 50만 명이었다고 보도했다.

시위대는 텔아비브 주요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그의 대처를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피살의 책임을 지고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인질 가족들은 “휴전 협상이 지연되면서 인질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고 공감 능력은 없다고 비판했다. 예루살렘에서는 시위대가 총리실을 에워쌌다.

●노총에서는 총파업 = 회원 80만의 최대 노동운동 단체인 히스타드루트(이스라엘 노동자총연맹)는 휴전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2일 총파업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히스타드루트가 이끄는

총파업 개시에 맞춰 인질 가족이 참여하는 시위대가 텔아비브 등지의 주요 교차로 10여 곳에서 거리를 봉쇄했다. 이들은 이스라엘 국기와 인질 석방의 의미를 담은 노란색 깃발, ‘죽음의 정부에 반대한다고 쓰인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총파업에는 운송, 유통, 행정 등 분야 주요 노동단체가 가담했다.

텔아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 노조는 2일 오전 8시부터 공항 운영을 중단했다. 여러 버스와 텔아비브·예루살렘 경전철 운영사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치원이 문을 닫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수업이 오전으로 단축됐다.

총파업은 2일 오후 6시까지 예정됐으나 이스라엘 노동법원이 극우 성향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등 정부의 가치분 신청을 받아들여 히스타드루트에 오후 2시30분까지 파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이번 파업은 정치적”이라며 “인질들이 살해된 것과 경제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히스타드루트는 법원 결정을 수용했지만, 인질·실종자가족포럼은 “파업이 아니라 인질 구출이 중요하다”며 대정부 시위가 이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파업 중단 후에도 수천 명이 총리 관저 앞으로 몰려가 저녁 늦은 시각까지 시위를 벌였다.

●정권 내부 갈등 격화 = 정권 내부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갈란트 장관은 1일 내각회의에서 “나는 부상자를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고 배웠다. 이견도덕적 수치다”라고 비난하며 “인질이 살아있기를 바란다면 시간이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악의 축(이란과 대리세력)이 필라델피 축을 필요로 한다”며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영구적으로 만들어야 한

다”고 말했다. 이틀째 거센 반대 여론을 마주하고서도 필라델피 회랑에 군 주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가자전쟁의 전환점 전망 = 외신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이 같은 시위가 가자전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이번 시위가 휴전과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움직임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네타냐후 정권을 전복하고 새로운 선거를 요구하는 운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히스타드루트는 지난해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정비 입법에 반기를 들었던 갈란트 장관을 해임하려 했을 때도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결국 목적을 달성한 바 있다. 텔레그래프도 이번 인질 피살과 시위가 휴전 협상은 물론 네타냐후 연립 정부의 전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텔레그래프는 “이번 비극이 어떤 면에서는 1972년 발생한 뮌헨 올림픽 참사를 떠올리게 한다”며 “향후 수년간 이스라엘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는 입장이 여전히 확고하지만 그가 정치적 생명 연장을 기대고 있는 연정은 취약하다며 갈란트 장관이 사임하거나 시위가 더 격화된다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고 짚었다.

●버티는 네타냐후… 나라, 두 동강 = 11개월 가까이 인질 구출 수단으로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고집하며 휴전을 거부해 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6명의 인질 사망으로 다시 한 번 벼랑에 몰렸다. 국내에서의 시위와 파업과 별도로 그동안 이스라엘의 전쟁 기조를 비판적으로 지지해 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놓고 네타냐후의 불성실한 휴전 협상 태도를 질타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 이전에도 인

질 석방 촉구 시위는 있었지만, 전쟁 발발 11개월째를 향해가는 시점에서 무더기 인질 사망이 부른 이번 시위에서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한 대중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휩쓸었다고 전했다. 일간 가디언과 텔레그래프 등 영구 언론은 이번 시위가 휴전과 인질 석방 촉구 움직임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네타냐후 정권 전복과 조기 선거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과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을 비롯한 네타냐후의 극우 파트너들은 시위대가 하마스 지도자인 아히야 신와르의 꿈을 채워주고 있다고 했고, 우파 성향의 일부 도시들과 정착촌은 노동단체의 총파업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60여 명만 생존한 것으로 알려진 인질을 두고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진 셈이다. 가자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를 놓고 둘로 갈라진 양진영 간의 긴장은 남은 인질들을 산 채로 구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면서 점점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하마스 소탕전을 비판적으로 지지해 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휴전안에 합의하지 않는 네타냐후 총리가 합의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협상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영국은 국제 인도주의 법 위반 위험이 있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허가 중 군용기와 헬기, 드론 부품 등에 대한 허가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강력한 협력 파트너이자 동맹 관계인 이스라엘에 제재성 조치를 한 셈이다. 가자 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에 일부 무기 판매를 중단한 서방 주요 동맹국은 영국이 사실상 처음이어서, 이스라엘 정부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330일 넘게 휴전 및 인질 석방 합의 압박을 견뎌 온 네타냐후 총리는 아직 흔들리지 않고 있다. 휴전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가자지구와 이집트 국경 완충지대 ‘필라델피 통로’에서 이스라엘군을 물리라는 하마스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악의 축(이란과 대리세력)이 필라델피 축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영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필라델피 통로는 하마스에 산소와 재무장을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필라델피 통로에 병력을 유지하겠다는 고집 때문에 인질이 죽었다는 비판도 일축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이 죽은 건 그 결정 때문이 아니다. 하마스가 합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먼저 벌어진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9월 2일 히스타드루트의 총파업 선언 이후 텔아비브에 모인 시위대가 가자전쟁의 즉각 휴전을 요구하고 있다.

【텔아비브=EPA/연합뉴스】

서울·이스탄불=연합뉴스

EU의 전기차 관세폭탄에 대처하는 중국의 '저자세'

보복관세 대신 외교 선택 기업들은 '물밑교섭' 진행

외국이 중국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면 중국은 언제나 '보복의 칼'을 꺼내들었다. 한국이 경험한 '사드 사태'와 '한한령'도 그중 하나이며, 이런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런데 최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전기차 관세폭탄을 맞은 중국이 의외의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끈다. 보복관세 같은 '조자룡의 헌 칼' 대신 외교와 물밑 교섭을 택한 것이다.

●EU산 브랜드 덤핑마진 확인하고도 '조치' 안 해 = EU는 오는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지난 6월 중국에 통보했다. 중국은 이러한 EU의 전기차 관세폭탄설이 나오던 지난 1월부터 EU산 브랜드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최근 30%대의 덤핑 마진(차액)을 확인했다. 하지만 상계 관세와 같은 추가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8월 29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2024년도 제35번째 공고문'을 통해 "지난 1월부터 진행한 반덤핑 조사를 통해 유럽연합(EU)산 수입 브랜드의 덤핑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EU 브랜드 제조업체의 덤핑 마진은 30.6~30.9%였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가 거론한 업체 대부분은 34.8%의 덤핑 마진이 인정됐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이 사안에 대해 "임시 반덤핑 조치는 당분간 추가로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이해당사자는 발표일(29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조사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중국이 EU의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중국-EU 간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이란 점을 감안한 것이라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이번 결정은 중국산 전기차 관세 확정을 위해 오는 10월께 EU 회원국들이 실시하는 투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올로프 질 EU 무역 담당 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발표가 EU의 중국산 전기차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두 가지는 별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EU 수출업자들과 협력해 계속해서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EU산 브랜드의 중국 수출이 모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위 세부 평가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이점이 무엇인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초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

라 상무부는 1월 5일부터 EU가 원산지인 수입 브랜드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상무부는 조사 결정 이유로 지난해 11월 30일 중국주류업협회가 중국 내 브랜드 업체를 대표해 '200L 이하 용기에 담긴 포도주를 증류해 얻은 증류주(브랜드)'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조사 착수를 두고 업계에서는 중국이 자국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에 나선 EU를 겨냥, 본격적으로 보복 조치에 나섰다라는 관측이 나왔다.

●EU 국가 중 '중국 편' 만들기 공들여 = 중국 당국은 대신 EU 국가 중 '중국 편'이 될 가능성이 큰 나라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른바 '적들의 분열'을 노리는 전략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타깃이 됐다.

중국 외교부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9월 8일부터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월 3일 브리핑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 초청으로 산체스 총리가 8~11일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방중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이 산체스 총리를 만나고, 리창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각각 그를 접견할 것"이라며 "양자 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방중 기간 양국이 중국-스페인 포럼과 양국 기업 자문위원회 회의, 비즈니스 포럼 등 행사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과 스페인은 전면적 전략 동반자로 수교 반세기 동안 전통적인 우의를 이어가며 호혜적 개방·협력을 심화해왔다"며 "중국은 산체스 총리 방문을 계기로 양자 관계의 새로운 진전과 높은 수준의 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 심화, 고품질 협력을 통한 글로벌 도전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전기차 등을 둘러싼 EU와의 무역 분쟁 속에 유럽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우군'을 확보하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7월 중국을 방문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에게 전기차·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 협력 의사를 표명했고, 멜로니 총리는 "국제 정세가 심각하게 격변한 가운데 주요 강대국인 중국의 역할은 대체불가능하다"며 협력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 '물밑 협상' 모색 = 정부의 대응과 별도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물밑 로비'를 펼치고 있다. 폴리티코는 중국 주요 전기차 제조사와 관련 단체가 최근 차량 판매 가격과 수출 물량을 조정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잇달아 제출했다고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판매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고 전체 수출물량도 일정 수준 이상을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율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일종의 '신사협정' 체결을 모색하는 셈이다. 현재까지 상하이자동차(SAIC)와 비야디(BYD)가 각각 1건, 지리(Geely)는 2건의 제안을 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주EU 중국상공회의소도 별도 제안서를 냈다.

이는 EU 관세 방침에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EU는 반보조금 조사 절차에 따라 지난 6월 상계관세 부과 계획을 처음 공개한 이후 절차마다 관세율을 소폭 하향 조정해왔다. 가장 최근인 8월 20일 발표한 확정관세 초안에는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한 추가 관세율을 17.0~36.3%p로 정했고, 중국 측과 협상을 언급하며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 캐나다의 100% 관세 부과 방침과 비교해서도 EU의 관세 인상 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아울러 EU가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어서 전기차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시장인 셈이다.

폴리티코는 이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협상 시도가 2013년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둘러싼 EU와 중국 간 무역분쟁을 연상케 한다고 짚었다.

당시 EU는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이후 양측 합의를 거쳐 최저가 이상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관세를 면제해주시기로 하는 등 일부 절충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유럽 시장을 잠식했고, EU 내 관련 기업들은 사실상 붕괴 직전이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EU의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는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가결되면 10월 30일 관보 게재 뒤 5년간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현지에서 전기차 공장을 직접 세우자" = 유럽 현지에서 전기차 공장을 세워 관세 폭탄을 피하는 방법도 추진되고 있다. 중국 전기차업체 샤오핑(엑스핑)의 허샤오핑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향후 유럽 내 생산 계획 일환으로 현재 EU 내에서 제조 공장 부지를 고르고 있다고 밝혔다.

허 CEO는 샤오핑이 "노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 공장을 지을 예정이라면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수집이 자동차의 지능형 운전 기능에서 가장 중요해짐에 따라 대규모 데이터 센터도 유럽에 건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샤오핑에 앞서 중국의 비야디(BYD), 체리(치루이)자동차, 지리(Geely)의 지커(Zeekr)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고율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유럽에 생산 기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용석 기자



지난해 11월 22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미국 테슬라의 대규모 전기차동차(EV) 충전시설.

【상하이=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파키스탄, '오랜 앙숙' 방글라데시에 "냉랭한 관계 개선하자" 손 내밀어

'셰이크 하시나' 퇴임 나비효과

파키스탄 정부가 방글라데시 국민 입국에 대해 비자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등 냉랭했던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방글라데시 일간 다카트리뷴 등에 따르면 아흐마드 마루프 방글라데시 주재 파키스탄 대사는 8월 2일 파키스탄 과도정부 내무 고문(장관격) 자한기르 알람 초우두리를 예방했다.

마루프 대사는 이 자리에서 자국이 최근 발표한 비자 수수료 면제국 126개국 명단에 방글라데시가 포함됐음을 밝히고 양국 간 무역과 인적 교류를 위한 직항로운항을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두 나라 간 직항로 운항은 2018년 이후 중단됐다.

마루프 대사와 초우두리 고문은 인신매매 방지와 대테러, 농업연구 등의 부문에서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마루프 대사는 방글라데시 남동부에서 최근 문순(우기) 폭우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난 데 대해 지원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집권한 지난 15년 동안 냉랭해진 양국 관계를 개선하자고 촉구했다. 마루프 대사의 초우두리 고문 방문은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지난달 30일 무함마드 유누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 수반(최고 고문)에게 전화를 걸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부활시키자고 촉구한 데 이은 것이다.

양국 간 이같은 '화해' 움직임은 인도와 밀착해온 하시나 전 총리가 지난달 대학생 시위로 인도로 도피하며 실각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방글라데시가 정치사회적 격변기를 맞은 틈에서 사이를 개선할 기회를 엿본 셈이다.

방글라데시는 1971년 3월 당시 서파키스탄이던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고, 인도의 지원으로 같은 해 12월 독립했다.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 식민 지배에서 각각 분리 독립한 인도와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등 '앙숙'으로 지내고 있다.

뉴델리=연합뉴스



침수엔 트럭이 최고 9월 2일 필리핀 리잘주 카인타에서 트럭에 올라탄 주민들이 제11호 태풍 야기로 침수된 거리를 지나고 있다. 현지 당국은 이날 '야기'로 인해 전국에 폭우가 내리면서 홍수와 산사태 등이 발생해 최소 1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카인타=AP/뉴스시】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B2B전자상거래 사이트

tradeKorea.com



No.1 B2B e-Marketplace in Korea



전세계 258개국
221만+ 바이어



800,000+
등록 상품수



14,000+ 건
연간 바이어 매칭 수

1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DB에서 바이어 검색하고
거래 제안서 발송

4 해외바이어 구매오피
tradeKorea가 발굴한 해외 바이어
구매 수요 실시간 제공

2 해외 비즈니스 매칭
KITA 해외지부 네트워크 활용
현지 바이어와 1:1 매칭

5 셀러스토어 제작 지원
기업용 온라인 스토어 무료 제작 지원

3 글로벌 유망바이어 거래알선
매달 3개사 온라인 초청 및
국내기업과 상시로 거래알선 지원

6 AI 기반 주간 자동매칭
기업정보, 활동정보 등 데이터 분석해
매주 새로운 바이어 자동 매칭

글로벌유망바이어거래알선

한국무역협회는 매월 엄선한 글로벌 유망바이어를 온라인상으로 초청하여 국내업체와 상시적으로 거래알선을 지원합니다.



<9월 글로벌유망바이어>

국가	소싱품목
방글라데시: Gre社	Firefighting Suits
예멘: Als社	Second Hand Vehicle Engine
콜롬비아: NIC社	SKIN CARE PRODUCTS

kr.tradekorea.com
사이트에서 소싱 진행 중인
글로벌 유망바이어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알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무역협회 플랫폼마케팅실
02-6000-5577

‘지표’가 말해주는 중국 경기침체… 깊어지는 불황의 늪

제조업 PMI 낙 달 ‘경기수축’ 식음료 폐업 이미 작년 수준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신호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각종 경기진착책에도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낙 달째 ‘경기수축’을 나타냈다. 부동산 시장도 회복은 커녕 추가적인 가격 인하 경쟁 속에 기업들이 경영 악화에 몰리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아 ‘도시 생활의 상징’이었던 버블티 가격은 바닥을 치고 있고 식음료 업체의 폐업은 이미 지난해 수준에 근접했다. 미국 언론은 중국 경제가 40여 년 전 개혁개방 이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각종 진착책에도 낙 달째 ‘경기수축’ = 중국 국가통계국은 8월 31일 올해 8월 제조업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월보다 0.3 낮은 49.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업 구매 담당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PMI 통계는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수축 국면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낙 달째 ‘경기수축’을 가리키고 있다. 중국 제조업 PMI는 49.5(작년 10월)→49.4(11월)→49.0(12월)→49.2(올해 1월)→49.1(2월)로 5개월 연속 ‘기준치 50’을 하회했다가 지난 3월 반년 만에 기준치를 넘었다. 이후 4월(50.4)까지 ‘50 이상’을 유지했지만, 5월 들어 49.5를 기록하며 다시 경기 수축 국면으로 바뀌었다.

6월은 5월과 같은 49.5를 유지했지만, 7월과 8월 들어서는 각각 전달에 비해 0.1, 0.3 더 떨어지며 낙 달째 50을 밑돌고 있다. 8월 제조업 PMI는 로이터통신 시장 전망치인 49.5보다도 낮았다.

한편 8월 중국 비제조업 PMI는 전월보다 0.1 상승한 50.3으로 집계됐다. 비제조업 PMI는 건설업과 서비스업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다. 중국의 내수 경기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쪽 상황이 양호하다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지난 3월 53까지 올라갔던 비제조업 PMI는 4월 들어서 상승세가 꺾였지만 8월 들어 소폭 반등하며 여전히 경기 확장 국면은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침체 속 대형 부동산 업체 매출 감소 = 중국 부동산시장은 8월에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대형 업체들의 실적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시장분석기관 CRIC 데이터를 인용, 8월 중국 상위 100대 부동산업체의 매출액이 2512억 위안(약 47조 원)으로 7월 대비 10%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1~8월 1000억 위안(약 19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부동산업체는 모두 6곳으로, 작년보다 6곳이 줄었다. 매출 100억 위안(약 1조9000억 원) 이상 기업도 작년 94곳에서 올해 56곳으로 감소했다.

매출 규모가 계속 줄면서 부동산 개발·판매업체들의 재정 상황도 나빠졌다. 실적 악화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개발업 매출 감소와 이익률 하락이다.

또 다른 시장분석기관 중국지수연구원 데이터에서는 올해 중간 실적을 공개한 상하이·선전·홍콩거래소 상장 기업 105곳의 매출은 평균 115억9100만 위안(약 2조 원)으로 작년보다 13% 줄었고, 순이익은 82.05% 감소한 1억4500만 위안(약 270억 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기업 72곳의 매출이 감소했고 87곳은 순이익이 줄었다. 50곳은 손실을 봤는데, 이 중 24곳은 코로나19 대

유행 이후 처음으로 손실을 기록했다.

●‘도시생활 상징’ 버블티도 초저가 경쟁 = 지난 20여 년간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도시 생활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버블티도 초저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경기 둔화로 소비자 지갑이 열지 않기 때문이다.

AFP는 최근 수십 년간 중국 전역의 도심 거리와 쇼핑몰에서 대용량의 화려한 버블티 1회용 컵에 빨대를 꽂은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고 이는 중국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광경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많은 버블티 체인점들이 25~40위안(약 4700~7500원)의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하며 번창했고, 수많은 브랜드가 중국 전역에 약 50만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FP는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경제 둔화로 버블티 업체도 이제는 1달러(약 1300원) 미만의 상품을 내놓으며 초저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가격 인하 경쟁 속 소비자들은 이제 ‘미쉐빙청’ 같은 저가 브랜드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식음료 매장 폐업 급증 속 소규모화 =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중국 요식업계 매출 침체 우려를 인용, 상반기 중국에서 국수집 3만 곳을 포함해 식음료 매장 100만 곳이 폐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런 폐점 규모는 작년 한 해 전체 폐점 규모에 근접한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KFC, 맥도널드, 하이드라오 같은 외식 체인점들이 소규모 매장 모델을 추진하며 중국의 소비 부진을 뚫고 나가려 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SCMP는 이들 업체가 지하철역, 길거리, 공원 같은 곳에 키오스크와 음식 카트

같은 것을 배치한 사진들이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선전의 한 작은 KFC 매장 앞에는 출근 시간 15위안(약 2800원)짜리 아침 메뉴를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면서, 이러한 소규모 매장의 등장은 패스트푸드 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신문은 소규모 매장이 매출은 작지만, 소비자들의 가성비 수요에도 부합하고 운영 가성비가 높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KFC를 운영하는 염차이나는 2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혁신적인 신 매장 모델이 그룹의 장기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지방 도시들에 더 많은 소규모 점포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맥도널드도 현재 약 6000개인 중국 내 매장을 2028년 말까지 1만개로 늘리겠다고 소규모 점포를 빠르게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개혁개방 이후 40년 만의 위기 = 이와 관련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경제가 40여 년 전 개혁개방 이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9월 2일 ‘중국이 부진한 경제를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기사에서 “부동산 붕괴로 인해 소비자들은 조심스러워졌고 기업들도 경계심을 갖게 됐다”며 이런 분석을 내놨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스스로 과거에 비해 부유해졌다고 느끼는 사람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201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7%로 최고를 기록했던 이 비율은 지난해 39%로 반 토막났다.

신문이 우선 중국 경제 위기의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것은 부동산 위기의 장기화였다. 가계 저축과 은행 부문, 지방정부 재정을 뒷받침했던 중국 부동산은 현재 개발업체의 붕괴로 막대한 부채, 팔리지 않은 아파트, 일자리 상실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 청년 실업률은 매일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이런 탓에 저축을 증시해 온 중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 올해 중국 극장가 매출이 전년 대비 반 토막 나는 등 소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급여를 삭감하고 채용을 축소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한때 중국으로 몰려들었던 외국 기업들의 철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운영하는 뷰티 편집숍 세포라는 최근 중국 경기 악화로 현지 직원의 3%인 120명 정도를 감축한다고 발표했고 미국 IT 기업 IBM도 중국에서 연구개발(R&D) 작업을 중단하며 1000명 이상을 해고키로 했다.

그나마 중국에서 수출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공급과잉으로 첨단 제조업계의 수익성이 훼손된 데다 주요 무역상대국들의 반발까지 사고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8월 13일 베이징 한 극장의 티켓 키오스크. 올해 중국 극장가 매출이 전년 대비 반 토막 나는 등 소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용석기자

중국-필리핀 '남중국해 분쟁'은 전쟁으로 비화될까

2주 새 4차례 충돌해 긴장 고조 미, '필리핀 편들기' 노골적 개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이어 남중국해가 다음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필리핀은 8월 하순 2주 사이에 4번 남중국해에서 충돌했으며 주변국들도 편을 갈라 대응에 나선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 지역에서 '명목상 중립' 입장을 버리고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노골적으로 필리핀 편을 들고 있다.

●**찾아지는 충돌, '화약 냄새' 짙어지고** = 지난 8월 중순 중국 정부 산하 남중국해연구원 우스춘(吳士存) 원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간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며 "분쟁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예언'은 중국과 필리핀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몇 년 새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장악 행보에 맞서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외치며 군용기·군함은 물론 항공모함까지 파견하면서 충돌 위기 상황이 종종 발생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중국과 필리핀은 우 원장의 발언 직후부터 불과 2주 사이에 스프래틀리군도 내 사비나 암초(중국어명 셴빈자오(仙賓礁)·필리핀명 에스코다 암초) 인근 해역 한 곳에서만 4차례 충돌했다. 8월 19일 사비나 암초 인근에서 두 나라는 '선박 대 선박'으로 충돌했다. 당시 중국은 필리핀 해경선 두 척이 사비나 암초 해역에 불법 침입했고, 이 가운데 한 척이 자국 선박에 고의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은 자국 해경선 두 척이 사비나 암초 인근에서 "불법적이고 공격적인 기동을 한 중국 선박들과의 충돌로 구조적으로 손상됐다"고 맞섰다. 이

어 25일에도 양국 선박은 사비나 암초 인근에서 물리적으로 부딪혔고 하루 뒤인 26일에도 이 지역에서 또 다시 마찰을 빚은 사실이 중국 해경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

다시 닷새 뒤인 31일에도 두 나라는 충돌했다. 중국 해경은 이날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불법적으로 들어온 필리핀 해경 9701 선박이 셴빈자오 인근 해역에서 닷을 내리고 지속적인 기동 행위를 통해 도발을 감행해 경고 방송과 감시, 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은 이어 "이날 오후 필리핀 9701 선박은 비전문적이고 위협한 방식으로, 정상적인 법집행 행위를 하던 (중국의) 5205 해경선을 고의로 충돌했다"며 이번 충돌의 책임은 전적으로 필리핀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해경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아무런 도발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해경 선박인 '테레사 마그바누아호(9701 선박)'를 세 차례 의도적으로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그가 공개한 영상에는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해경선의 옆구리 등 세 곳을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또 중국 해경선 3척, 중국 해군 함정 2척, 중국 해상민병대 선박 5척 등 중국 측 선박 10척이 테레사 마그바누아호를 둘러싼 장면도 촬영됐다.

이번 충돌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즉각 성명을 내 "중국의 불법적 해상 영토 주권 주장과 공격적인 행동이 각국 항행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특히 "8월 내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합법적인 항공 및 해상 작전을 공격적으로 방해했다"며 "미국과 필리핀 간 상호 방위조약이 남중국해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나라의 '분쟁'에 개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남중국해 영유권 둘러싼 갈등의 배경** =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대만·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사비나 암초는 필리핀 서부 팔라완섬에서 서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져 있다.

이곳은 필리핀과 중국의 최대 분쟁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있는 필리핀군 병력에 물자를 보급하는 필리핀 선박들의 집결지이기도 하다. 그간 중국은 사비나 암초를 선점한 뒤 자국 해경 선박을 대거 배치했으며, 국제 사회의 눈을 피해 사비나 암초를 인공섬으로 만들기 위해 매립 작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필리핀은 지난 5월 중순 중국의 사비나 암초 인공섬 건설 활동을 감시하던 서 테레사 마그바누아호를 이 암초에 파견했다. 이후 이 선박은 지금까지 다른 필리핀 해경선의 물자 보급을 받으면서 석 달 넘게 현지에 머무르고 있다. 필리핀은 사비나 암초 부근 해역에 필리핀 에너지 수요를 최대 75년간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싱가포르 vs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미국·일본·호주·캐나다** = 이 지역에서의 분쟁이 중국과 필리핀 두 당사국의 '영토 분쟁'을 벗어나 국제적인 '전쟁 위험지역'으로 바뀐 것은 올 4월 이후다. 미국은 지난 4월 이 지역에서 필리핀·일본·호주와 처음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이 지역의 분쟁이 이전의 정치·외교 영역에서 군사·안보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미국이 '탈(脫)중립' 노선을 분명히 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전까지 이 지역에서의 영토 분쟁에 비교적 중립적 입장을 취해왔다.

이후 7월 6~7일 미국·필리핀·호주·캐나다 4개국은 이 지역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공중·해상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

평양 사령관 등 4개국 군 지휘부는 공동 성명에서 이번 훈련이 "자유롭고 열려 있는 인도-태평양을 지지하는 지역적·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우리의 집단적 약속"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참가국들이 "국제법에 따른 해양권을 존중할 뿐 아니라 자유로운 항행·비행, 해상과 국제 공역의 기타 합법적 이용 권리를 옹호한다"고 강조했다.

말은 그럴싸하지만 이는 중국과 필리핀의 분쟁에 우리 4개국이 집단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다름이 아니다. 이번 훈련에서 4개국은 군함과 전투기 등을 동원해 대잠수함 훈련, 해로 합동 기동훈련 등을 벌였다고 익명의 한 필리핀군 관리가 전했다.

중국도 전투 순찰로 대응했다.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4개국 합동 훈련에 대응해 영유권 분쟁 해역인 스카버러 암초(중국어명 황옌다오·黃岩島) 일대에서 "정찰, 조기 경보, 신속 기동, (남부) 전구 병력의 합동 타격능력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또 "남중국해를 교란하는 군사적 활동"을 자신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통제 하에 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은 이웃이자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규합하고 있다. 지난 7월 일본과 상호과범·합동훈련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을 체결한 데 이어 일본 해상자위대와 첫 양국 합동 군사훈련을 했다. 미국은 필리핀 해경 현대화 등을 위해 군사 자금 5억 달러(약 6800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도 이 지역에서 중국과 영토분쟁 중이다.

●**중국, 싱가포르와 합동 해군훈련…베트남에는 절제된 대응** =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9월 1일 광둥성 잔장시 군항에서 개막식을 갖고 '중국·싱가포르 협력-2024'로 명명된 합동 군사훈련에 들어갔다. 이번 훈련에는 중국 프리깃함 썬야, 기뢰제거함(소해함) 허젠, 싱가포르 해군 프리깃함 RSS 스톨와트(Stalwart) 등이 투입돼 5일까지 합동 대함타격, 해상 보급, 합동 수색 및 구조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양국 해군이 개최하는 3번째 합동 군사훈련으로, 그동안은 중국이 싱가포르에 함정 편대를 파견해서 진행했던 바 있다.

중국을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베트남·대만·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지만 싱가포르와는 특별한 갈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CM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과 베트남과의 정치적 관계, 베트남의 신중한 접근방식, 필리핀과 미국의 동맹 등을 여러 요인을 고려해 중국이 베트남에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신종합



8월 31일 남중국해 사비나 암초(중국어명 셴빈자오·필리핀명 에스코다 암초)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해경선의 옆구리를 들이받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필리핀 해경이 공개했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만 '찜통' 아니었네... 지구촌 곳곳 역대 최고 기온

여름보다 더 더웠던 호주 겨울
역대 폭염 기록 갈아치운 일본
9월에도 섭씨 40도 넘는 중국
열사병 사망 배로 늘어난 미국

지난 여름 사상 최장 기간 열대야를 기록한 한국의 무더위는 어쩌면 '약과'였을지 모른다. 지구촌 곳곳이 역대급 무더위에 시달렸다. 심지어 남반구의 호주는 지난 8월 겨울철임에도 섭씨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찾아왔다. 일본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무더운 여름을 보냈고 미국에서는 열사병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중국은 9월 들어서도 4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가시지 않고 있다.

●겨울 사라진 호주... 기온 40도 넘기도 = 겨울이 끝나가고 있는 남반구 호주가 올해 가장 따뜻한 8월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간 가디언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따르면 호주 기상청은 지난 8월 전국 평균 기온이 장기 평균 대비 3.03도 높았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장기 평균 대비 2.56도 높았던 2009년 기록을 깬 것으로 통계 집계 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또 전체 겨울 평균 기온은 장기 평균 대비 1.48도 높아 지난해 1.54도 높았던 것에 이어 기록상 2번째로 따뜻한 겨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도시 시드니에서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8월 평균 기온보다 10도 넘게 높은 날이 이어졌다. 북서부 킴벌리 지역은 8월 26일 기온이 41.6도까지 올라 호주 역사상 겨울철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극심한 겨울 폭염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기상청의 사이먼 그레이저 박사는 지난 7월부터 호주 주변 바닷물 온도가 매우 높아지면서 겨울 폭염의 토대가 마련됐으며 "심각한 열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기존 기록을 쉽게 넘어섰다"고 말했다.

●2년 연속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무더운 여름 = 일본 기상청은 올여름(6~8월) 평균 기온이 평년 기준치를 1.76도 웃돌면서 1898년 통계 작성 개시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 평균 기온과 같은 것으로 2년 연속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도시화 영향이 비교적 작은 전국 15개 지점의 올여름 평균 기온을 평년 기준치(1991~2020년 30년 평균치)와 비교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도치기현 사노시에서는 올여름 가장 높은 41.0도까지 치솟았다. 이는 2018년과 2020년 기록한 일본 사상 최고 기온(41.1도)과 비교해 불과 0.1도 낮다.

8월 9일에는 미에현 구와나시에서 40.4도를 기록하는 등 일본 전국에서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졌다.



한겨울인 8월 30일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사람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9월에도 고온... 개학 연기도 = 중국 내 일부 학교는 고온 현상 탓에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다. 평파이 등 중국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남동부 장시성 난창시 최소 4개 구(區)에서 폭염이 지속하자 당국이 초등학교 개학을 9월 2일에서 9일로 미뤘다. 3월에 시작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9월에 1학기를 시작한다. 난창시 기상대는 전날 오전 최고 기온이 섭씨 39도에 육박하자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주황색 폭염 경보를 발령했다.

충칭시와 쓰촨성 당국도 관할 초등학교 및 중학교 개학일을 9일로 일주일 늦췄다. 쓰촨성 난중시의 경우 9월 1~4일 최고기온이 41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됐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뿐 아니라 충칭사범대와 충칭과학기술대 등 대학들도 이상 고온으로 개학을 연기했다.

충칭시 당국은 8월 말 6일 연속 고온 적색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3단계로 구성된 중국 고온 경보에서 적색은 기온이 24시간 내 40도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최고 경보다. 당시 인접한 청두시 당국도 5일 연속 고온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열사병 사망자 24년 만에 117% 증가 = 미국도 9월에 섭씨 40도가 넘는 무더위가 예보됐다. 미 기상청(NWS)은 9월 3일 샌프란시스코 동쪽인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부터 서부 해안, 애리조나 남부 국경에 이르는 지역에 폭염 경보(Excessive Heat Warning)를 발령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인 6일까지 '위험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역대 일 최고기온이 다수 경신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연중 기온이 온화하기로 유명한 LA 권역에는 40도(이하 섭씨 기준)가 넘는 기온이 예보돼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한편 미국에서 20여 년 만에 폭염 관련 열사병 사망자 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1999년 연간 1069명이던 열사병 사망자는 지난해엔 2325명에 달했다. 24년 만에 117% 증가한 셈이다.

●가장 습했던 지구촌 여름... 인간 생존 위협 = 지구촌이 올해 기상 관측 사상 가장 습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로 인한 습한 무더위가 일부 지역에선 사람을 생존의 한계로 내몰고 있으며 극한 폭염과 호우의 우려도 키우고 있다.

뉴질랜드 국립물대기연구소(NIWA)의 기상학자 벤 놀이 집계한 습도의 척도인 이슬점(대기 속 수증기가 물로 응결하는 온도) 관측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올해 미국은 85년간의 관측 기록상 가장 습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 여기서 여름은 기상학적으로 6~8월을 가리킨다.

알래스카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기상학자 브라이언 브렛슈나이더는 WP에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습한 여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1998년 이후 미국과 전 세계 모두 가장 습한 여름 기록을 5차례 갈아치우는 셈이다.

높은 습도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인체는 땀을 흘려 증발시키며 몸의 열을 줄이는 데 공기가 습할수록 땀의 증발이 천천히 일어나 몸의 열을 낮추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열 관련 질환이나 사망의 위험을 높인다.

●뜨거워진 여름에 전 세계로 퍼지는 곤충매개 질병 = 기후 변화와 해외 여행자의 증가 등으로 모기와 같은 곤충을 매개로 하는 질병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모기로 인한 희귀 감염병인 동부말뇌염(EEE) 발병 사례가 올해 처음으로 보고

된 데 이어 뉴햄프셔주에서는 2014년 인간이 EEE에 걸렸다고 보고된 뒤 감염자가 없다 갈해 다시 발병 사례가 나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올해 여름 EEE 외에도 역시 모기를 매개로 하는 뎅기열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빨간집모기와 지하집모기 등에 의해 전염되는 웨스트나일열 발병 사례도 계절을 가리지 않고 미국 전역에서 보고되고 있다고 약시오스는 전했다.

남미에서는 주로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 국한해 발병했던 모기 매개 질병인 오로푸치열이 대륙 전체로 확산하며 여행객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볼리비아처럼 이전에는 오로푸치열 발병 사례가 없던 국가에서도 올해 들어 100건이 넘는 확진 사례가 나오는 등 남미 전역으로 질병이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곤충 매개 질환이 확산하는 배경에는 곤충이 활동하기 좋은 더운 여름은 길어지는 반면 겨울은 짧아지는 기후 변화와 더불어 해외 여행객 증가, 산림 벌채와 같은 지형 환경 변화의 영향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메건 래니 예일 공중보건대 학장은 약시오스에 "과거에는 '열대성'이었던 질병들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이제 미국 일부 지역도 (열대 기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신 종합

한국무역신문 www.weeklytrade.co.kr
 발행인·대표이사 : 김석경 편집인 : 김보근
 인쇄인 : 이병동 편집디자인 : 강성구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3F - 017호)
 구독 : 02-6000-3124 광고 : 02-6000-3116

대표전화 : 02-6000-3119
 팩스 : 0303-3447-3119
 E메일 : wtrade07@gmail.com
 정가 2,500원 정기구독료 : 1년 100,000원
 등록일자 : 2007년 4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 다07698

2024 무역아카데미 e러닝 주요 교육과정 안내

WORLD TRADE ACADEMY PROGRAM GUIDE



e러닝 교육과정

회원사 대상 교육비 **20%** 할인 적용



e러닝 상세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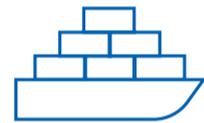
무역실무

생초보 핵심무역실무, 무역실무
마스터 패키지 등 무역결제/
무역서류/무역계약/운송 및 통관



무역마케팅

바이어를 사로잡는
전시마케팅,
수출마케팅 기초
등 마케팅 및 국제
비즈니스 협상



FTA

FTA 원산지 관리 및
서류작성 실무 등
* 관세청 원산지관리
전담자 교육 점수 인정



회원사 여부
조회하기



외국어

영문 이메일 작성,
비즈니스 회화 등

* 영어/일본어/중국어 등 7개 언어



IT/OA

Chat GPT, AI이노베이션,
워드/엑셀 과정 등 IT 비즈니스
및 OA과정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513 코엑스 전시장 4층 무역아카데미

문의 : 02-6000-5378/5379

홈페이지 : newtradecampus.kita.net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